신한 국 1 9 9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20





·신한류 모델콘테스트

ISSUE 1 - 신한류 갈라쇼

-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 의사, 태권무로 형상화하다
- ·김겨울작가북토크
- · 사회과학대학 백일장

신한대학교 청두대학MOU체결 디자인학부 졸업작품전시회 이석재 총동문회장 인터뷰 Culture 서평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톡톡'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덩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강성종 • 발행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20. 04, 30 • 편장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최수민 기자 • 디자인 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Contents

01_US.KOREA.SOL.1010.599.GX

02_이념과 비전

04_편집장 논설

06_신한류 갈라쇼 10_신한류 모델콘테스트

14_총장배 찬양경연대회

16_신한대학교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18_우즈베키스탄 물품지원

20_신한대학교 청두대학 MOU체결

22_간호학과 소개

24_패션디자인전공 소개

26_김서룡교수 패션쇼

28_신한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30 디자인학부 졸업작품전시회

32_이석재 총동문회장인터뷰

34_신한대학교 학술제

38_김대중 대통령 서거10주년 서예전

40_안중근 의사 의거110주년 기념 태권도 뮤지컬

44_사회과학대학 백일장

46_미디어언론학과 취업 특화 프로그램

48_김겨울 작가 북토크

50_한국미술협회 미술관설립합의

52_대담한기자들-주류문화와 하위문화의 경계

56_컬쳐

66 이모저모

72_기부금 현황





SHINHAN UNIVERSITY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 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2020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 S 신한국인(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 T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 A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 R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 T 재능(Talent)을 함양시키는 New-versity
- Q 품질개선(Quality)활동을 통해 도약하는 New-versity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젊음 '2019 제3회 신한류 갈라(Gala)쇼'

문화예술전공 학생들이 그린 또 하나의 축제 중국 사천음대 이커 전 총장 "신한류 갈라쇼 공연의 수준과 그 열정에 감동했다" 경기 북부를 넘어 한류의 중심을 노리는 신한대학교의 도전

지난 11월 22일, 신한대학교를 대표하는 '신한류(新韓流)' 행사 중 하나 를 발굴하는 목적이었다면, 갈라쇼는 순수하게 신한대학교 학생들만의 인 '제 3회 신한류 갈라쇼(Gala Show)'가 벧엘관에서 개최되었다. 신한 류 행사는 신한대학교가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부터 매년 개최 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규모 행사이다. '신한류'의 어원은 '한류'에 서 유래한 것으로, 신한류 행사들은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처럼 경기북부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지가 되고자하는 신한대학교의 거대한 야망 을 잘 보여준다. 신한류 행사에는 'K-POP 뮤직 페스티벌', '신한류 슈퍼루 키 모델 콘테스트', 'K-POP 스트릿댄스콘테스트', '신한류 갈라쇼'가 속해 있으며, 각 행사들은 이름에 붙은 '한류'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해마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축제', '잔치', '향연', '흥겨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인 '갈 라(Gala)'의 의미를 담은 신한류 갈라쇼는 다른 신한류 행사들과 사뭇 다 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래 신한류 행사가 전국과 세계를 아우르며 인재

끼와 재능을 발산시키기 위함에 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그동안의 신한류 갈라쇼는 신한대학교 재학생들의 무대로 구성되어 왔다. 올해도 신한대학교 대학원을 비롯해 총 3개 학과, 6개 전공(▲공연예술학과 K-POP전공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 ▲공연 예술학과 태권도교육융합전공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200여 명의 학생들이 무대를 장식했다.

쇼는 신한류 갈라총 9개의 무대(▲아이돌 퍼포먼스 ▲GX Dynamic Performance 댄스 리믹스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댄스 퍼포먼스 ▲The Beauty Fantasia With Op Art ▲밴드(Queen) 퍼포먼스 ▲Fashion Show ▲태권도 시범공연 ▲커튼콜)로 구성되었다. 서로 다른 전공





학생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로 꾸민 갈라쇼는 말 그대로 신한대학교만의 또 다른 '축제'를 연상시키게 했다.

신한류 갈라쇼는 서로 다른 여러 학과가 각각의 개성에 맞게 준비해 학과의 특색을 맘껏 뽐내는 자리였다. 당일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은 높았고, 대다수 학생들이 공강인 금요일 저녁 시간에 신한대학교 벧엘관 관객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갈라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객으로서 자리를 빛냈다. 관객 호응을 유도하는 무대에서 관중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마치 콘서트장이나 대규모 축제를 연상케 했다.

본래 신한류 갈라쇼는 서로 다른 학과들과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창작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신한대학교의 '신한류'를 완성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다. 하지만 이번 신한류 갈라쇼는 학습적인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를기는 신한대학교의 '또 다른 축제'에 가까웠다. 형식적인 의전이나 개회사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학생들만의 무대로 시작해서 끝난 점이이를 반증한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키워오던 인재들이 서로간의합작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자신들을성장시키고 세상에 표출하는 무대가 바로 '갈라쇼'인 것이다.

사립학교 그룹 총장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과 중국 사천음대 이커 전 총 장, 청두시 321창의원 위빙 대표가 올해 갈라쇼에 초청되었던 것이다. 공연 관람 후 이커 전 총장은 "갈라쇼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신한대의 신한류 문화 수준과 열정에 대하여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1년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에 신한대학교의 역할을통해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전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한 신한대학교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

세계화와 한류의 흐름 속에서 신한대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런 노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끝나지 않는다. 올해 연계 전공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광과 의료를 결합한 관광의료 학과의 출현이나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잦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사례는 문화예술 분야 외의 '글로벌 신한대학교'를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전반적인 글로벌 교육의 흐름 속에서 신한류 갈라쇼는 신한대학교가 경기 북부 최고의 문화예술 종합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예술계로 진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성 기자

애벌레여, 이제는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라

2019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선발대회 성황리에 개최 글로벌 인재 위한 노력으로 7개국 77명 본선 진출 대상에 한국의 김동석,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상에 몽골의 인다라 김동석 슈퍼 루키 "세계대회, 모델의 기초인 워킹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



많은 사람들이 '슈퍼 모델'이라는 직업에 대해 오해하곤 한다. 화려한 조명을 받고 런웨이를 걷는 그들을 보고 단순히 옷을 입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직업이라고, 잘난 것은 그저 외모 밖에 없다고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는 시기에 차서, 누군가는 패션업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런 말들을 늘어놓곤 한다.

2019년 10월 7일 저녁, '2019 제5회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선발대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하는 통쾌한 일침과도 같은 행사였다. 전 세계 7개 국에서 선정된 77명의 본선 참가자들은 수능을 앞두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불어 닥치는 한파 속 야외무대에서도 거침없이 무대를 활보했다. 연출을 위해 다소 변형이 가해진 런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평생그 곳에서만 연습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모델은 단순히 옷을 입고 걷는 직업이 아닌,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하며 담은 감정과 가치들을 관객들에게 최대한 표현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2019 슈퍼루키 모델 선발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대회이다. 전세계의 모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모델 업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8월에 시작되어 3개월간 해외 인재 선발 과정을 거쳤으며, 10월부터 시작된 국내 예선과 11월의 결선까지 포함하면 총 4개월의 대장정을 걸어온 셈이다.

선발대회의 시작은 축하공연과 오프닝 런웨이로 진행됐다. '개별 인터 뷰'에 해당하는 오프닝 런웨이에서 본선 진출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리 며 심사위원들에게 스스로를 어필했다. 모델의 가장 기본 요소인 걷기와 몸놀림, 표정 등을 심사하기 위해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얇은 옷을 입은 모델들이었지만, 루키 모델들은 '이래야만 슈퍼 모델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양 태연하게 연기를 펼쳤다.





오프닝 런웨이를 마친 뒤에는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의 개회사와 안민석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루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 참여한 젊은 슈퍼루키들 중에는 내가 해외에서 심사를 봤던 사람들도 있다"라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추운 날씨이지만 다들 결과와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선발대회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춥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혀 춥지 않다"며 자신들의 열정은 초겨울 저녁의 추위 따위로 얼어불게 할 수 없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야외무대의 관객석에는 출전 루키들의 가족과 지인들, 많은 지역주민들과 본교 임직원 및 학생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김종준 한국 미술협회장, 김도영 J모델 대표, 사은영 한국 모델협회이사 등 여러 귀빈들이함께 자리했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 모델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루키모델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눈에 담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신한류 슈퍼루키모델 콘테스트가 가진 저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도볼수 있을 것이다.

개회사와 축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오프닝 런웨이의 결과를 심사하였다. 이날 행사의 심사위원단은 김 재윤 신한대학교 고문, 신우식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최교익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 손범 에스팀 원장, 김도현 죠이모델K 대표, 사은영 한국모델협회 이사, 슈퍼모델 이화선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류재경 신한대학교 학생지원처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신한대학교 모델학과 이선진·김재범 교수 등 10여 명이 준비위원으로서 위촉되었다.

이날 선발대회에서는 오프닝 런웨이를 통하여 총 22명의 참가자가 '루키 모델'로 선정되었다. 본디 20명을 선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동점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모델 및 패션 업계의 전문가들이 고심하고도 끝내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발대회의 참가자들이 얼마나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본선 진출자가 선정된 뒤, 이들은 다시 한 번 누가 '슈퍼 루키'인지를 가리기 위한 경합을 펼쳤다. 이번 경합은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입고 진행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김서룡 교수와 신유지 교수의 지도하에 완성된 작품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본교 패션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패션은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워서 같은 주제를 따라 완성하더라도 만드는 사람에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말했다. 이름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 디자이너의 제자'의 작품인 만큼, 작품의 의도를 분석하고 또 표현하는 데에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실시간으로 경합과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선발대회 사이사이에 정체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무대는 선발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열기로 가득 차있었다. 다양한 축하무대가 준비되어 자칫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빈 시간들을 채워준 덕분이었다. 특히 '히든 싱어' 출연자 범찬이 소속된 것으로 유명세를 떨친 2인조 남성 그룹 '옆집오빠'는 그동안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였던 경험을 살려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한편 관객석에 도사린 추위를 날려버렸다. 또한, 2018년 신한류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에서 한국의 '한'의 정서를 춤으로 풀이하여 금상을 수상했던 실력파 댄스팀인 '글로리 라이트'의 축하공연이 관객들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었다. 특히 '글로리 라이트'의 공연은 최종 결

과 발표를 앞두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긴장을 잊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최종 경합 결과, 대상에는 참가번호 5번 김동석(한국), 준우승이라고 할수 있는 문화체육부관광부위원장상에는 참가번호 12번 인드라(INDRA AMARTUVSHIN, 몽골), 최우수상에는 참가번호 19번 김동하(한국)와 참가번호 76번 장지민(한국), 그리고 특별상에는 참가번호 21번 김신일 (한국)과 참가번호 33번 발눌(BALNUR BOLEGENOVA, 카자흐스탄)의총 6명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김동석 슈퍼루키(전남 목포 마리아고등학교 재학 중)는 "대상을 받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너무 얼떨떨하고 기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델을 꿈꿨는데,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유명 모델 '럭키 블루 스미스'와 한 무대에 설수 있는 모델이 될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상금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금이 주어지며, 이 외에도 신한대학교 모델콘텐츠전공 입학 시 장학금 혜택, 에스팀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아카데미 수강 기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 수상자인 김동석 슈퍼루키는 전 세계 35만여 모델이 지원하는 세계적 모델 대회인 'The Look Of The Year' 한국대회의 본선 자동 진출이 확정되며, 앞으로 더욱 넓은 무대를 향해 나아갈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한 김동석 슈퍼루키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꿈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델의 기초인 워킹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대회를 주관한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은 "신한대학교는 현재 까지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선발대회'를 비롯한 다양한'신한류' 행사들을 통해 아시아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며 "신한대학교는 이를 통해 앞으로 신한류의 중심지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며, 스타 발굴은 물론 그에 따른 교육과 지원을 병행하여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신한대학교 측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이번 '제5회 슈퍼루키 모델 선발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신한류 행사들을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자신들이 또래 경쟁자들보다한걸음 더 앞서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지만, 이들 슈퍼루키 모델들 앞에 펼쳐질 것은 더욱 험난한 '슈퍼 모델'로서의 길이다. 이제 실로 자기 몸을 감쌀 뿐이던 애벌레의 시기는 지났다는 뜻이다. 비록우화의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이날 참여한 모든 루키 모델들이 결실을 맺기를. 그리하여 나비가 되어 가장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우아하게 런웨이를 확보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박현규 기자





화려한 중창부터 발랄한 율동까지, '제1회 신한대학교 총장배 찬양 경연대회'

13팀의 다채로운 찬양 무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해 신한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학과 찬양팀들도 나서 1등 사랑상에 의정부 열방교회의 '아리엘 어린이 합창단'이 수상



11월 21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제1회 신한대학교 총장배 찬양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첫 번째 찬양 경연대회였던 만큼 기독교 신자들의 알찬 무대가 펼쳐졌다. 경연대회의 사회자는 김선 정 개그맨으로, 깔끔하고 재치 있는 진행을 보여주었다.

대회 참가팀은 총 13팀으로, 첫 번째 참가팀은 일산 든든한 교회의 '권 사 중창단'이었다. 이들은 참가곡 '겸손'으로 조화로운 공연을 펼쳐 첫 번 째 무대를 멋지게 장식했다. 두 번째로 '헤븐리 보이스'는 2018년 창단한 선교합창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해'라는 곡으로 나섰다.

다음차례는 '휘오스 합창단'이었다. 휘오스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 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합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담 고 있다. 힐링과 나눔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이들은 각종 합창제와 음악 회를 개최하고 있는 합창단이다. 참가곡 '우리가 주를 찬송할 때'를 부르 며 합창단을 알리고 찬양의 즐거움을 전했다.

신한대학교 소속 기독교 동아리도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신한대 기독교 동아리인 'C.C.C'와 'W.S.A'가 각각 '우리가 사랑함은' 곡과 '잇쉬가 잇샤에 게 (김복유)'라는 곡으로 무대를 채웠다. 우선 'C.C.C'는 참가목적에 대해 "이번 찬양 경연대회에서 상금을 타는 것이 목적"이라며 "저희는 매년 겨 울 2박 3일간의 금식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상금을 받게 된 다면 우승 상금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W.S.A'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청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각 학과에서 만든 찬양팀들도 나섰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모여 만든 ' 은혜 받은 유교'팀과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의 '십자가 군병'팀이었다. 자 발적으로 모여 합창단을 구성한 '은혜 받은 유교'는 "그저 찬송과 무대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종교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도 하 나남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며 참가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참가곡 꽃들 도'와 '하늘 위에 주님밖에'를 통해 센스 있는 율동으로 발랄한 분위기의 무대를 선보였다.

'십자가 군병'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군 장교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들은 "이번에 육군 6명, 해군 1명, 해병대 3명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4년간 전액 학비 지원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국군 장교로 임관하는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하 지 못할 일은 없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의 진리를 가슴에 새겨 군 기를 들고 나아가겠다"고 힘차게 말했다. '십자가 군병'은 참가곡으로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를 택했다. 모두가 제복을 입

고 등장하여 절도 있는 경례를 시작으로 웅장한 피아노 연주와 지휘 속에 서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권상 중창단'과 같은 교회인 '믿음 중창단'은 중년 여성들로만 구성된 합 창단이다. 그들은 조화로운 목소리로 '주님만 아시네'라는 곡을 불러 흠잡 을 데 없는 무대를 꾸몄다. 충만한 교회의 찬양팀인 '다윗처럼'은 '아무것 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시여'를 불렀다. 이 팀은 아이의 맑고 앳된 목소 리로 무대를 시작하여 하이라이트에서는 찬양팀 모두가 노래를 함께 불 러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의정부에 위치한 교회들의 찬양팀도 많이 참가했다. 그중 사랑과 평화 의 교회의 40~50대 중년 남성들로 구성된 '카리스 중창단'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찬양의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은혜를 위하여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영광'을 불렀다. 성만교회의 '오마 이갓 찬양팀'은 각각 다른 찬양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경연대회를 위해 결합한 팀이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이번 찬양 경연대회를 통해 세대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주품에'라는 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 다. 마지막 팀은 약 45명으로 구성된 권사 찬양대인 순복음의정부교회의 '사론 찬양대'로, 기도워 금식 성회와 외부 행사를 통해 단련된 실력으로 ' 그 가 (우효원)'를 불러 웅장함으로 승부했다.

그 밖에,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도 있었다. 창단 7년째인의 정부 열방교회문화국 소속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로 구성된 '아리엘 어 린이 합창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맑은 목소리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동두천 소망교회는 색 소폰 연주의 찬조공연을 펼쳤다

1등인 사랑상은 의정부 열방교회의 '아리엘 어린이 합창단'이 수상하였 다. 2등 믿음상은 순복음의정부 교회의 '샤론 찬양대'가 수상하였으며, 3 등 소망상은 든든한 교회의 '믿음 중창단', 4등 기쁨상은 신한대학교 소 속 동아리인 'W.S.A', 5등 화평상은 사랑과 평화의 교회의 '카리스 중창 단'이 수상하였다.

올해로 1회째를 맞은 '신한대학교 총장배 찬양 경연대회'는 다양한 팀들 의 찬양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무대였다. 다음 경연대회에도 더 많은 경기 북부의 신자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혁신의 아이콘' 신한대,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간 통폐합한 대학의 성공적인 사례 강성종 총장 "결실은 신한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뤄낸 것" 이번 평가인증을 계기로 신한대가 펼쳐갈 새로운 모습 기대돼



신한대학교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기원에서 진행하는 평가로서 인증을 획득하기위해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필수평가준거와 30개평가준거(5개 평가영역)를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대학 차원에서의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사회 차원에서 대학교육 질 보장과 사회적 공신력 부여 ▲국가적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국제사회에서 고등교육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률 가집계 결과는 73.7%로 경인지역 2위를 달성하였고, 유학생도 불과 5년 전 17명에서 768명이 넘는 성장을 거두었으며,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 1만 2천274명(수시경쟁률 9.8대1)이 지원해 경기북부 대학 가운데 최고 지원자 수를 달성한 것들을 살펴봐도 평가인증을 획득한 것은 합당한 결과로 보인다.

강성종 총장은 "이번 기관평가인증 획득은 우리 대학이 전문대학과 일 반대학간의 통폐합을이룬 대학의 성공적인 사례를 입증한 것"이라며 " 이러한 결실은 신한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뤄낸 것으로 이에 멈추지 않 고 대학의 인재상인 '국가와 인류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 양성과 더 높이 도약하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10년대 내내 대학가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이나 중앙기관 이름 앞에 혁신을 붙이며 국정을 이끌었던 것처럼 대학들도 혁신을 내세 웠다. 대학 총장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도 대학교육 혁신에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신한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룬 것은 멈추지 않는 미래지 향적 혁신을 향한 멈추지 않는 힘찬 발걸음 덕분이었다.

이제 2010년대의 해가 저물고 2020년대의 새 해가 떠올랐지만 저출 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변화, 대안 교육기관의 등장, 고학위의 영향력 감소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대학가 사이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학이 너무 많고 수준이하의 교육과 특성화도 안 돼 있어 대학의 반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2018년 8월 13일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 보좌진 업무설명 자료집'에 따르면 2021학년도에는 5만 6000여명의 대학정원 미충원이 예상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2~3년 동안 약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충격적인 전망이 예상돼 상황의 심각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된 이번 평가의 경우 68개 대학이 참여하여 96%인 65개 대학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개 대학이 인증유예, 1개 대학이 불인증을 받았다. 한편, 2000년~2018년까지 총 16개 고등교육기관이 폐교했으며 8개 법인이 해산했다.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대학들처럼 언제까지고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발전이 없으면 도태되기 마련이 다. 때문에 신한대가 세계 유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성장 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을 계 기로 신한대가 주도해나갈 새로운 혁신을 기대해 본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전해지는 'K-POWER'… "고마워요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 바이오 R&D 사업단 면역 활성 증진 기능성 제품 'K-POWER' 개발 코로나19사태로 힘들어하는 우즈베크 현지에 'K-POWER' 포함한 구호 물품 보내 현지 타슈켄트 지역에 신한대학교 캠퍼스 설립 협약을 체결 2020년 9월 개강 예정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이 질환은 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으나 세계보건 기구(WHO)에 의해 2020년 2월 11일에 'COVID-19'로 정해졌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명명했다.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있어 정부는 코로나19의 유행양상과 대응 상황을 토대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다.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공통점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도 'K-방역'이라 불리는 적극적인 대처를 선보여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같은 높은 진단 역량이 바로 그 예이다.



국가의 노력 이외에 신한대학교 바이오 R&D 사업단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전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차원의 노력으로 면역 활성 증진을 위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였다. 바이오R&D사업단에서 개발한 'K-POWER'는 다양한 생약 재료를 식품 분야에서 food contact materials 개발, 맛과 질감 및 영양분 흡수항상, 바이오센서 등 식품안전과 제조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나노 기술을 응용한 제품이다.

신한대학교는 핵심역량 중 '봉사역량'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K-POWER 15박스를 포함해 마스크 5,550개(10박스), 소독용 에탄올



Южная Корея направила помощь

Первая парт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отправленной Южной Кореей, прибыла в Ташкент. В состав груза вошло медицин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изделия стоимостью около 1 млн долларов. 신한대학교는 핵심역량 중 '봉사역량'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K-POWER 15박 신한대학교는 핵심역량 중 '봉사역량'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K-POWER 15박 스를 포함해 마스크 5,550개(10박스), 소독용 에탄올 400개(6박스), 항균 티슈 24통(2 스를 포함해 마스크 5,550개(10박스) 등 여러 구호 물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박스), 손 소독제 10,168개(424박스) 등 여러 구호 물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지원했다.

400개(6박스), 항균 티슈 24통(2박스), 손 소독제 10,168개(424박스) 등 여러 구호 물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게 지원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돕는'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대학 비전을 실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부총리 아지즈 압두하키모프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 지 이번에 알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에게 고 맙다.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다",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우즈베크와 유사해 우즈베크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 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친절한 한국 덕분에 좋은 우호 관계 를 지속해서 유지해나가고 싶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한대학교는 2018년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대학설립에 대한 MOU, 2019년 5월에 사전협약을 진행하였고, 대학 설립조인식을 통해 구체적인 대학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 설치학과와 전공 및 교육과정 개발과 교류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신한대학교의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간호학과, 국제 관광경영학과, 패션디자인학과의 3개 학과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지 타슈켄트에 설립된 4년제 종합대학은 다가오는 2020년 9월에 개강 예정이다.



최수민 편집장

ShinHan E. 199
ShinHan University

신한대학교, 글로벌 시대의 '교두보'가 되다 42년 역사의 중국 청두대학교와 교류 협력 시작







적극적 협력으로 향후 견고한 협력관계에 '청신호' 청두대학교 왕칭위엔 총장 "신한대의 실용중심 학문 및 문화예술 관련 지식에 높은 가치 부여" 중국의 공자아카데미와 한국의 세종학당 각각 설치 합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수하기 마련이고, 일의 규모가 커질수록 실수 역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항상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글로벌 교육 허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신한대학교가 외국 유수의 대학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시도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러 한 시도의 일환으로 신한대학교는 최근 중국의 명문대 중 하나인 청두대 학교(Chengdu University)와 교류 협력을 시작했다. 청두대학교는 1978 년 청두에 개교한 종합대학교로, 예술대학, 간호대학, 기계공학대학, 관 광문화산업대학 등 14개 단과대학에 59개의 전공을 운영하는 한편 재학 생 21,930명, 유학생 600여명이 수학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에서 전 략적으로 실용학문 분야를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학교이기도 하다.

신한대학교와 청두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연을 맺은 시간은 길지 않다. 2019년 9월경 양학교의 첫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고, 상호간에 비슷한 배 경과 발전상황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실용학문을 중시하는 학풍까지 같 다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이 타 대학보다 빨리 이루어 졌다.

양교의 직접적인 첫 교류는 2019년 10월 14일,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이 청두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청두대학교 총장을 만나 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또 청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날 양교는 당일 만에 다방면에 걸친 학생교류와 학술활동은 물론, 2021년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1년 8월 8일 청두에서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선수촌이 청두대학교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청두대학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련 스텝과심판, 관광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청두대학교 왕칭위엔(王清元)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으로 "신한대학교의 실용중심 학문 및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고 말하며 "신한대학교가 가진 장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회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청두시 정부와 상의 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2019년 11월 25일에는 청두대학교 혁신창업센터 천리에(陈烈) 센터 장을 포함한 5인의 방문단이 4박 5일간 신한대학교를 방문하여 상호 이 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상 국외 학교간의 교류 중 방문과 답방의 속도를 비교하였을 때, 약 2주 만에 청두대학교의 답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청두대학교가 신한대학교와의 협력을 중시하며 해당 사안의 성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방문기간 동안 청두대학교 대표단은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와 동두 천캠퍼스를 돌아보았으며, 디자인예술대학의 디자인학부, 공연예술학부 와 바이오생태보건대학의 식품조리과학부,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치위 생학부, 그리고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의 글로벌관광경영학과를 특히 유심 히 살펴보았다. 한편 해당 방문기관 동안 천리에 센터장과 신한대학교 각 전공 교수들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어떤 전공 혹은 프로젝트를 단 시간에 협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는 또 다시 빠 른 시일 내에 신한대학교에서 방문단을 파견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2019년 12월 18일, 신한대학교는 교내 전공교수들로 구성된 TF팀을 청두대학교에 파견했다. TF팀은 양교의 현 상황에 맞추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공과목의 교수들로 꾸려졌다. TF팀의 방문 기간 동안 양교는 모델콘텐츠전공과 뷰티미용, 그리고 식품조리과학을 시작으로 차차 교류영역을 확대하는데 뜻을 모았고, 2020년 3월학기 중에 해당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과 시설물들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이협력 모델들은 모두 202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또한, 천리에 센터장은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청두대학교 교환학생 혹은 단기연수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청두대학교는 신한대학교 학생을 위해서 단독반을 개설하거나, 연수 이후 현지 기업에 인턴 쉽을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 중에 있다. 중국어가 영어에 이어 제2의 글로벌 공용어로 부상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는 중국어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에게도 중국어 어학실력을 높이거나, 중국을 이해하는데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인턴쉽의경우 기회는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없는 기회이지만, 청두대학교 혁신창업센터가 적극적으로 신한대 소속 학생들에게 인턴쉽 연결에 도움을 줄것을 약속했다.

그 외에도 양교는 현재 중국의 공자아카데미를 신한대학교에, 한국의 세종학당을 청두대학교에 각각 설립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 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공자아카데미와 세종학당이 각각 학교 에 설치되면 양 학교의 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굳건한 동맹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 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현규 기자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직 간호사 양성의 국제간호대학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2020년 9월에 개교하는 신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에 간호학과를 개설 신한대학 간호의 세계화를 실현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은 1995년 신흥전문대학 간호과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도에 4년제 신한대학교 개교와 함께 간호대학으로 승격하여 명 실상부한 명문 간호대학의 대열로 도약하게 되었다. 신한대 간호대학은 25년의 역사 속에서 약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간호 계 각 영역에서 유능한 간호 인재로서 성실하게 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2019년 3월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와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 하면서, 경기 북부의 명문 간호대학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적 간호 인재 양성을 교육목 표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선도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을 갖도록 다양성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은 교수 13명, 직원 4명과 더불어, 간호학과생 500여 명(편제정원 90명), 대학원생 30여 명까지 총 550여 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교직원들은 우수한 간호 교육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창 의적 간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에 간호대 학 단독건물인 베데스다관에 최첨단화 실습 시설과 스마트 강의실 등을 구축하고 간호대학 건물 위에 3개 층의 300여 명 정원의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가 건립되어 간호학과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학업과 동아리 활동 및 비교과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차후 국제간호리더 양 성을 위해 외국어 몰입교육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있다. 그 결과, 신한대학교는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2012년 1 주기 평가, 2016년 2주기 평가에서 모두 간호학 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간호학과는 인간중심의 글로벌 전문직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인간 돌 봄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 속의 신한간호'를 창출하고자 2020년 9월에 개 교하는 신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에 간호학과를 개설하여 신한대학 간호 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외 의료 선진국인 미국과의 간호 교육 교류를 위해 2017 년 간호학과 교수들의 미국 하와이 연수를 통해 대학 간 해외 교류 및 학 원, 노원을지병원, 명지병원 등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지역사회 보건 생 연수 활성화를 계획했다. 이어 간호학과 학생들의 하와이 퍼시픽대학 및 UCSD(샌디에이고 주립대학) 간호교육연수를 통해 신한대 간호대학 의 국제적 교류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의 국제적인 간호 교류와 비전을 위해 일본 동경 의 커뮤니티케어와 노인간호의료기관 연수, 싱가포르와 중국 타이산 의 대와의 교류 등을 추진하였으며 몽골 및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의료봉사 에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국제 간호 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학과는 2017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의 인증을 받아 동두 천 연천지역 최초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에서 치매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간호학과에는 보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2학 년부터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육봉사와 학교 현장실습을 거 쳐 교육부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이수하면 보건 교사 2급 자격증을 취 득하게 된다.

또한 간호학과 전공 동아리, 전공 멘토링, 나이팅게일 선서식, 체육대회, 학술제, 취창업 특강, 간호 부장 초청 특강, 연합 MT, 해외 연수, 해외 의료 봉사 등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의 임상 실습 기관은 고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 소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 전문병원, 여성전문병원 등의 뛰어난 실 습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매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매년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 교 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병원 등의 국내 최고 수 준의 병원에 학생들이 취업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민건 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정부 기관(NGO), 국공립 연구소, 민 간 보험회사보건소, 산업장, 소방서, 교도소, 초·중·고등학교, 육해공군(간 호장교)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미래시대를 주도할 '실무형' 디자이너 양성하는 신한대학교

한국 대표 남성복 디자이너인 김서룡 전공 주임교수를 필두로 전문적인 교육 실행해 직업기초능력과 진로개발,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기획 샘플 제작 등 '실무형 인재' 양성



디자인은 인간의 생활환경과 다양한 산 업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도 구로서 그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중 인간의 의식주 생 활에서 의생활에 해당하는 패션은 앞으 로도 그 가치와 활용 범위가 확장, 진화 해 나갈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은 이러한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 변화, 패션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다. 올바른 인간관과 디자인관을 가진 감성적 디자인 인재, 시대적 요구에 따른 패션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디자인 인재, 창의적 감성과 과학적 분석력을 겸비한 창조적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테크니컬 원리와 다양한 패션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실용적 디자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디자인 이론과 전공기초, 전공 심화 과정의 체계적 학습 커리큘럼과

한국의 대표 남성복 디자이너인 김서룡 전공 주임교수를 필두로 패션 실무 전문 교수진의 실무 중점 교육을 통해 디자인 이론과 패션 실무를 아우르는 시대가 요구하는 진취적이고 우수한 글로벌 패션 전문 인재, 다가올새로운 미래사회와 시대를 주도할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직업기초능력과 진로개발,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기획 샘플 제작 등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의복 전반에 대한 이해와 패션 스타일링 실무 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창업이 용이한 패션디자인전공의 특성을 살려 쇼핑몰 창업 및 패션 창업 비즈니스, E-비즈니스 창업, 창작 텍스타일 워크숍, 패션 상품 등으로 창의적 작품 제작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산학협력 및 산학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 실무교육 내실화와 취업률 확보, 산업체 인턴 십 등 현장실습 운영으로 취업 범위 확대에 힘쓰고 있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의 졸업 후 진로 방향으로는 신사복 디자이너, 숙녀복디자이너, 평상복 디자이너, 아동복 디자이너, 유니폼 디자이너, 아웃도어웨어 디자이너, 이너웨어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공연 의상 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스타일리스트, VMD, 인터넷 쇼핑몰 창업, 쇼핑몰 기획, 쇼핑몰 운영, 테크니컬, 패턴디자이너, 패션 소재 컨버터, CAD 디자이너, 패션 가게 매니저, 패션 기획, 컬러리스트, 패션소비자, 패션 show 연출가, 패션 아티스트 관련 자격증으로는 의류 기사, 의류 기술사,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 컬러리스트기사, 패션디자인 산업 기사, 패션 매장담당자, 패션스타일리스트, 섬유 디자인산업 기사, 섬유산업 기사, 양복 산업 기사, 양장 기능사 등이 있다.







김서룡 교수, 플라워 프린트와 새틴으로 패션쇼를 물들이다

2020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S/S 패션쇼, 이색 패션쇼로 화제 획일화된 런웨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연출해 공감대를 형성 총 73벌의 의상으로 보고 느끼는 즐거움 배가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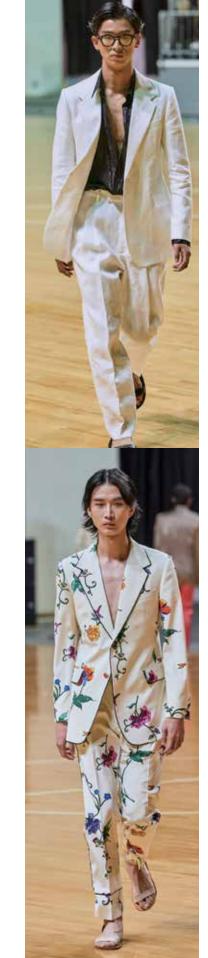
김서룡 교수의 2020 S/S 패션쇼가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김서룡 교수는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의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올림픽공원, 미술관, 잠실 서울책보고, 장충체육관 등 이색적인 열린 공간에서 최근 몇년간 패션쇼를 열어 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2001년 서울패션위크에서 40회 이상의 패션쇼를 개최한 김서룡 교수는 "같은 공간, 획일화된 런웨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연출하고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패션쇼를 하고 싶었다"라고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장충

체육관에서의 패션쇼 역시 김서룡 교수의 이와 같은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장충체육관은 김서룡 교수에게 오래전부터 동대문을 오가며 늘 지켜봐 왔고 호기심을 자극했던 의미 있고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천정이 높고넓게 트인 공간인 만큼 패션쇼 연출에 있어 부담감도 없진 않았지만, 실험적인 도전으로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

이번 컬렉션은 총 73벌의 의상을 모델에게 입혔고 넓은 공간을 효율적인 동선으로 구성해,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헤이, 굿 룩킹! (Hey, Good looking!)"을 주제로 플라워 프린트와 새틴 원단의 콜라보레이션에 집중한 이번 패션쇼는 김서룡 교수 특유의 남성미가 물씬 풍겼다. 자연스러운 핏과 여유로운 스타일, 잔잔하고 과감한 플라워 패턴과 밝고화사한 색상의 소재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로맨틱한 2020 S/S 남성복이완성되었다. 김서룡 디자이너는 "패션피플들이 슈트를 기대하는 만큼 집중하고는 있지만, 자칫 재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와 실루엣 등 표현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패션위크와는 달리 독립적인 패션쇼는 충분한 준비 시간에 스태 프 및 모델들에 대한 배려와 리허설을 할 수 있고 관람객에게도 역시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의 시도를 검토하고 있다. 착용해야 하는 옷의 수가 많은 만큼 엔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넓은 체육관 실내에 일제히 쏟아지듯 걸어 나오는 모델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행복을 디자인하다' 디자인학부 거버넌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다 소통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한대학교 대상 수상 '설렌당' 팀 정성호 학생 "교내에서 슬럼화 된 공간 활용을 집중 조명" 산업디자인전공 박현철 교수 "창의 융합형 커리큘럼 체계화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지식의 폭발이 일어난 오늘날 사회에 서는 기존의 단순한 지식들만 갖고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과거에는 지식들이 특정 집단이나 소수 대학생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었던 반면, 현재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 외에도 학생들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학이 그저 단순한 지식만을 학습시켜주는 곳에 불과하다면 학생들은 굳이 대학 진학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듯 학생이 없는 대학은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학은 항상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어야 하며 학생들의 요구와 학습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대학이 학생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소통방식이 주류였다면, 오늘날 대학은 학생들과 양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한대학교가 선택한 방법은 '학과 특성화 사업'이다. 지난 11월 13일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의 「사회기여형 창의 융합 서비스디자인 양성사업단」은 '행복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이 제안하는 디자인 거버넌스(Governance)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학생들이 직접 교내에 낙후되고 불편한 시설들을 찾아 새롭게 디자인할 방법을 모색해 학교에 개선점을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전공 지식 활용 능력을 키우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거버넌스(협 치)'의 의미까지 살려낸,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행사였다.

행사에는 11개 팀, 총 14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전공 역량 향상을 위한 행사인 만큼, 오전에 진행된 1부 행사에는 관련 특강이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 교양교육원 소속 강민지 교수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띵킹(Design Thinking)' 강연을 통해 인류사회가 처해있는 사회·환경적 문제 발견과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디자인 방법을 학생들에게 일러주었다. 또한, '디자인 띵킹'의 소개와 혁신 기업들의 사례 및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제 접근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제시했다.

오전 강연 후, 2부 행사에는 본격적인 팀별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각자 아쉬웠던 학교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팀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했는데, '교내비활성화 공간 활용안', '차량 이동로 신설' 등 다양한 교내 환경 개선책들이 제시되었다.

아이디어 심사는 산업디자인전공 박현철 교수, 공간디자인전공 이선민 교수, 패션디자인전공 신유지 교수가 맡았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고심한 심사 끝에, 공모전 대상(1팀)은 '설렌당' 팀에게 돌아갔다. 외에도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이 선정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설렌당' 팀의 정성호 학생은 "보통의 것에서 좋은 것으로 의 변화보다 안 좋은 것에서 보통의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삶의 행복도에 있어서 더 큰 상승치를 보인다"며 본인의 팀이 추구한 아이디어 방향과 그 가치를 설명했다. 그는 현대적 의미의 '슬럼(Slum)'을 언급하며, "교내에서 슬럼화 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주제 발표와 아이디어 선정 및 발표까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 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심사를 맡았던 공간디자인전공 이선민 교수는 "다양한 화두가 등장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과정은 솔루션이었다"며 "이 는 구체적인 대안을 낼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음 디자인 거버넌스에서 해결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라고 총평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이 추구한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공유가치 추구와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융합형 전문 서비스 디자인 인력 양성이었다. 그 목적에 잘 부합하게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은 일방적인 지식을 습득당하고 있던 강의실에서 벗어나 다른 학생들과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스스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디자인예술대학 「사회기여형 창의 융합 서비스디자인 양성사업단.은 이번 사업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전공 박현철 교수는 " 시대의 변화 속에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인간의 경험 가치를 교내관 련 전공 분야와의 협업을 통하여 상호공감하고 융합함으로써 창의 융합 형 커리큘럼 체계화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며 이번 공모전의 기대 효과와 포부를 밝혔다.

'학생이 제안하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아이디어 공 모전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가치융합 디자인을 중심으로 도시화 (Urbanization) 및 공공복지, 마케팅, 지능형 스마트 제품, 의류 및 섬유 소재, 고부가 식품 및 서비스, 방송통신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을 도모하 고, 대학에서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실무형 융합디자인 전문가 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는 신한대학교가 추구하는 교 육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의 노력들이 허사가되지 않도록 제시된 많은 아이디어들이 향후 학교 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되고, 이후 더 다양한 학과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를 기대한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 디자인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졸업 작품 전시회

차별성 있는 높은 완성도와 실력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어… 2020년 디자인학부 졸업예정자 이미 50%대의 취업률 달성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학의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는 풋풋한 새내기들이 있는가 하면, 4년간의 대학과정을 마무리하고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는 졸업 준비생들도 있다. 그간 신한대학교에서 연마한 실력과 성과를 정리하며 마지막을 보내는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이유로 바쁘게 지낸다. 단지 4년의 학사과정을 채운 모든 학생들에게 졸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학과마다 그 특성에 맞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만이 '졸업'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졸업 준비생들은 학과별로 각기 다른 분야의 활동을 하며 졸업을 준비한다. 그 중,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디자인학부의 학생들은 타학과생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졸업을 준비한다.

글로벌통상경영학과와 같은 학문 위주의 학과들이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전공지식을 쌓았는지를 점검하는 '졸업시험'을 치른다면, 디자인예술대학의 학생들은 그와 더불어 그것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인증할 수 있는 '졸업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난 몇 년간의 노고가 담기는 만큼 디자인예술대학 학생들에게 있어 졸업 작품의 의미는 특별하다.

Bokeh:

2017 EMBINIAN SINVERING
FARHOND DESCON MAJOR
SAN GRADOUNDON
FARHOND BECOM
FARH

학생들의 열정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은 캠퍼스 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졸업생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전시하는 행사를 연다. 세 분야의 전공과목이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에 펼치는 이들의 멋진 첫 도약을 함께 살펴보자.

■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 'Bokeh' 패션쇼

지난 6월 4일, 디자인학부 졸업 작품전의 시작을 알린 것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패션디자인전공의 '패션 컬렉션'이었다. 총 22명의 학생 들이 예비 신진 패션디자이너로서 창의와 열정을 담아 준비한 무대로, 총 65벌의 의상을 선보이며 기성 디자이너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 있는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컬렉션은 각각 컨셉을 정해 스타일링을 선보였는데, 특히 남성복 디 자인에서 그 차별성이 눈에 띄었다. 그 외에도, 남성복·여성복 및 악세서 리를 컨셉에 맞게 활용한 토탈스타일링을 보여주며 좀 더 차별성 있는 디 자인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패션디자인전공의 한 관계자는 해당 패션쇼에 대하여 "주된 피사체를



향한 렌즈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하는 '보케(Bokeh)' 기법에서 영 감을 받아 각자의 유의미한 주제를 자기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착란원이 만들어지는 여정을 담담 하게 표현하였다"며 "각각의 주제는 다시 하나의 작품으로서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의 세 번째 이야기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 'Brick' 졸업 작품 전시회

신한대학교 공간디자인전공의 졸업전시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대학로 홍익아트센터 지하 1층(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에서 진행되었다. 대표작 'See(n)-through(청소년자율학습센터)' 와 'STEP UP', '한걸음 뒤 (로)' 등 총 41개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모든 전시작들의 수준은 신한대학교 공간디자인전공 학생들의 높은 수준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해당 작품들은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의 '코시드 공모전'에서 11개 이상의 작품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전시회를 찾는 이들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여운을 선사했다.

■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작품 전시회

디자인학부의 졸업 작품전 중 가장 말미를 장식한 산업디자인전공 작품 전시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지하2층, 제4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산업디자인전공의 졸업 작품전은 총 41명의 졸업 예정 학생들이 구성한 102점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작품전을 빛낸 대표 전시작으로는 'Visual Information Design Project I', 'Visual Design Graduate Research Project', 'Visual Information Design Project II',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 'Advertising Me-





dia Workshop' 등이 있었다. 이제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사회로 발을 내딛어 가야하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과 생각들이 작품들에서 묻어나왔다.

산업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작품들 역시 다른 디자인전공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 다양한 공모전(도로교통안전 공모전, 무역보험 공모전, 수산자원 공모전, 안중근 공모전, 엔젤리너스 공모전, 장례문화 공모전, 쳐돌이 공모전, 토양환경 공모전, 해양안전 공모전 등)에서 28점 이상의 작품들이 수상한 기록이 있다.

현재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디자인학부 2020년 졸업예정자는 실무 중심 교육의 결과로 이미 50%대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이들이 신한대학교에서 디자이너로서 꿈을 펼치기 위한 의미 있는 성장기간을 보낸 만큼, 앞으로의 날들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끝없는 잠재력을 믿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또한, 이들의 뒤를 이을 다음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의 화려한 졸업 작품 전시회 역시 기대해 본다.

조유빈 기자



이토저격

2004 (840) 4540 FRY 2018 100/11 4340 44/14 50/241 10/24 45 204 2 84 874 84 148 6 36 VINJVYY 84 66 238 4000/17 다니니♡



'뼛속까지 신한인' 이석재 총동문회장을 만나다

이석재 총동문회장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지 위해서 단기적인 목표부터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 신한대, 전 세계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 밝혀

"저는 뼛속까지 '신한인'이에요. 학교를 남달리 사랑했죠. 제가 임상병리 과를 나오고, 처남도 임상병리과를 나오고, 또 큰아들도 임상병리과를 나오고, 작은아들은 공공행정과를 나왔죠.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신한대학 교를 나왔어요. 완전 '신한가족'이죠"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을 뜻하는 '평생교육'과 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동문회'. 그 어디에도 평생교육과 동문회의 교집합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신한대학교에는 존재한다. 바로, 이석재 총동문회장이다. 그는 한평생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한대학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학교와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학교를 남달리 사랑했다"는 그의 말처럼 신한대와 깊은 인연이 있는 그. 12월 16일, 현재는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본부장과 총동문회장직에 재임하고 있는 이석재 총동문회장을 만났다.

인터뷰에 앞서, 학생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상병리과 1기를 졸업했고, 제가 학부생일 때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웃음). 그래서 국가고시도 합격하고 신한대학교에서 조교를 3년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신한대학교 동문을 그 일대에 자리 잡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2000년도에 학교에서 장학위원장으로 취임하고, 1년 후에 전 동문회장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동문회장식을 맡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지요. 벌써 18년째가 되었네요.

여러사업들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병원을 보건소하고 연계했던 게 그 당시 다른 병원들과는 가장 큰 차별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방접종 환경이 아주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장비를 갖춰서 성북구 보건소에 모든 예방접종을 맡게 된 것이

죠.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 했었어요. 조그만 병원을 설립하고 난 뒤에 한 7~8년 후에 세미 급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노원과 의정부에도 병원을 하나씩 짓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의정부 병원은 학교에 세주고, 현재는 평생대학원의 본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원에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데 요, 평생교육원이 내세울 만한 장점과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 이 있을까요?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신한대학교가 경기 북부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는데 일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성공한 CEO들과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하면서 졸업생들의 취업에 상당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죠.

본인이 추구하는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공부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귀감이 되고 곧 그것이 인성교육인 셈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역할이 계약학과라든가, 학점은행제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한인이 많이 양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한대가 배출해낸 인재 중에서 자랑 할만한 분이 있다면?

사실 따지면 제가 조교 때 가르쳤던 제 제자들이죠. 일단 경기도 개발연구원장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삼성의료원에 기사장으로 계시고, 또 치기공과에 처장님 두 분이 계시고요. 학생지원처장님과 행정지원처장님도 있어요. 그리고 임상병리과 교수들이 있죠. 이분들은 다신한대학교를 졸

업한 후에 다른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서 우리 학교에 후배들을 위해 재임하면서 훌륭한 후배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지 금도 보건계열 쪽에는 매머드 급 종합병원에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 대다 수가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에요.

지난 9월 경기 북부지역 대학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제막 하기도 했는데, 신한대학교의 위상이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다 고 생각하나요?

제가 동문회장으로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신한 대학교를 많이 홍보하려고 했죠. 현재는 사회에서 신한대학교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경기 북부에 사는 지인들은 어떻게 하면 신한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볼 정도죠. 그만큼 신한대학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신한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현재 산악협력이 있잖아요. 학교와 여러 가지 기업체들과 더 진취적으로 MOU 등을 맺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원에 '평화통일지도자과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남북통일이 되면 신한대학교가 주축이되어서, 북한 사람들과 동포로서 많은 교류를 하는 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훌륭한 후배들을 배출해서 신한대가 글로벌 시대속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강의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트렌드를 알고, 첢은 마인드를 가져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만 해도 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발전하고 바뀌는 학문이 보건, 의학쪽이에요. 첨단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학습방법하고는 다르죠. 제가 굳이 하겠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적인 가르침은 안 되리라 생각해요. 우리 후배들은 좋은 교수님이 가르쳐야죠. 지금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인생, 철학 같은 것이에요. 전문분야에서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웃음).

신한대학교 학생들, 나아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창한 꿈보다는 이룰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

에 충실해야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기적인 목표부터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을 이루는 신한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룰 수 있는 현실부터 시작하라"라는 그의 말에서 그간 살아온 인생의 진한 향기가 물씬 느껴졌다. 그가 신한대학교를 위해 노력해온 세월만큼 학교는 그만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바로 이석재 총동문회장과 같은 인물들이 사회 적재적소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신한대학교 학생들과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인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로 도약해 이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역량 꽃피운 학술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각 학과의 홍보 및 동아리 활성화 이루어져… 미디어언론학과 박소임(3학년) 학생 "작년보다 늘어난 다양한 부스들 새로워"

신한대학교에서 지난 이틀간 학술제가 열렸다. 학술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과 특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부스들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학과 학생들이 학문적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부스,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스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료한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신한대학교 제2대 총학생회 '들봄'도 다채로운 네 가지 행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행사는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즐 겼던 뽑기판을 이용한 행사로, 뽑기를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일명 '뽑기의 전쟁'이다. 두 번째 행사는 추억의 간식인 달고나를 만들고 모양에 맞춰 깨며 학생들이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하는 '고것 참 달고나'이다. 세 번째는 주모분장을 한 들봄의 교육정책국장이 내는 역사퀴즈를 맞추면 식혜를 받을 수 있는 '청춘 주막'이다. 네 번째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는 '들봄케키'를 진행했다.

학교 내 동아리들은 다양한 부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를 가졌다. 동아리들 중 '로타랙트' 와 '마이버디'는 학생들이 직접 전통의상을 입을 수 있는 체험부스를 마련해 다문화에 대해 몰랐던 지식이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예술분과에 속해있는 동아리인 '아람 사진연구회'와 'S.N.S', '시리뷰'는 자신들이 직접 그리거나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SNS를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동아리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체육분과 동아리인 '밀당'과 '한울 테니스'는 동아리 영상을 시청하며 간단하게 퀴즈를 풀고 맞힌 학생들에게 상품을 증정했다.



신한대학교 교육방송국 'SEBS'는 교내방송국이라는 특성을 살려 '방송만물상' 행사를 진행했다. 아나운서 발음 미 션 성공 시 뽑기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진리관 앞에서는 바이오생태보건대학 학생 회 'BEGIN'이 실시하는 학술고사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학술고사는 각 학과 부스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준비된 행사로, 'BEGIN'은 해당 행사를 통해 자전거와 즉석카메라, 각종 상품권 획득의 기회를 마련했다.

은혜관 지하 2층 체육관에서 진행된 학과 부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로 학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글 로벌관광경영학과의 칵테일 동아리 '리커리움'은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생회와 합심하여 무알콜 카테일과 간단 한 안주를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했으며, 유아교육학과 부스에서는 '토이 스토리 4'에 등장하는 '포키'라는 캐릭터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신한대학교 학술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학생들의 '안중근의 꿈'이라는 뮤지컬 공 연이었다.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기리며 안중근 의사의 일생을 태권도와 연 기로 재현했다. 이번 학술제에 참여한 미디어언론학과 3학년 백소임 학생은 "작년보다 색다른 부스들이 많이 보여 서 참여하는 재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쌀쌀한 가을바람도 막지 못할 만큼 그들 각자 의 재능과 학문적·창의적 역량을 열정적이고 눈부시게 피워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 서예로 그려내다

故 김대중 대통령 서기 10주기 특별 서예전 예술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하나 되는 기회 가?

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속 바위에 새기고 간직하면 좋겠

일정_2019, 10.01(화) ~ 10.08(화) 시간_10:00 ~ 17:00(공휴일 휴무) 장소_신한대학교 벤엘관 1층 신한갤러리

🦊 신안대학교

"용서와 사랑은 진실로 너그러운 강자만이 할 수 있다. 꾸준히 노력하며 하느님께 자기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까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언제나 기구하자. 그리하여 너나 내가 다 같이 사랑의 승자가 되자" – 옥중서신. 1980년 11월 24일



김대중(金大中),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정갈한 머리, 꾹 닫은 입매에서 다부진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난다. 그를 생각하면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 '민주주의의 표본' 등의 여러 가지 키워드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저 키워드만을 가지고 그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끝끝내 너그러운 강자로서 생을 마감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서적과 일본에서 출간된 시사교양지 등을 통해 독학하며 지식을 쌓았다. 한국전쟁 이전, 20대이던 1950년 4월부터 그의 언론 기고가 기록으로 확인되며, 나이 삼십을 전후한 시점부터 국가문제부터 노동,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제의 글을 국내 주요 언론에 기고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한국의 암울한 현실은 오히려 김전 대통령이 민족의 미래와 사회발전을 위해 행동하도록 만든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그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과 역사 발전의 방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등을 고뇌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곧 독서와 저작활동 등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그의 여정에 있어 그동안의 고뇌와 활동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의 역할을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과 가족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었던 독 재자들이나 그 협력자들에 대해 분노했지만, 대신 미워하지 않고 용서했 다. 연금과 투옥 등의 상황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좌절하거나 아파하면 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역사, 철학, 경제, 문학서적 등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사색했다. 이후 대통령이 된 그는 자신을 핍박했 던 독재자와 군사 지도자들을 용서했다. 평소 자신의 철학대로 화해와 용 서를 실천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퇴임 이후, 신장투석을 받는 상황에서도 노벨평화상 수상 자이자 국제적인 지도자로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중 대통 령은 국내외의 각종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각종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외 대학 을 비롯한 주요 단체, 기관 등의 강연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고령 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자신의 강연 원고를 손수 준비하 며, 강연에 앞서 여러 차례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 곤 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연설이 된 2009년 6월 11일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 연설에서 그는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 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 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 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미래를 살아갈 민주시민에게 남겨진 마지막 유 언이 되었다.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예술전이나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신한대학교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지난 10월 1일 의정부캠퍼스 벧엘관 1층 야외 원형극장에서 '특별서예전' 개전식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서예전에는 배기선 전(前) 의원, 한국서가협회 강대회 이사장, 한국서가협회 조영란 부이사장, 연천동두천지역위원회 남병근 위원장, 김기형 전 의정부시장, 신한대학교 교직원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전식에 참석한 강성종 총장은 "오늘 이 서예전을 통해 저와 정치인들, 학생들까지도 대통령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속 바위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희 총학생회장은 "죽음의 고비를 넘 기시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주창하셨던 당신의 그 의지는 세상을 배우 는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위대한 길을 따라 걷기 위해, 당신의 그 존귀한 삶을 정확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서예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사상이 깃든 어록들을 서예 작품으로 승화시킨 다양한 작품들을 무료로 감상할수 있게 하였으며, 문희상, 이종찬, 이해동, 한화갑, 남궁진, 배기선, 강대희, 권인호, 권창륜, 김영기, 박상찬, 변요인, 송하경, 이돈흥, 이용, 정하건, 진영근, 황성현 작가 등이 참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평화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지만,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현재와 미래 세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무엇 하나 정해져 있진 않지만 변하지 않는 말이 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 쓰인 말처럼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이토가 하얼빈 역에 내리는 그날 바로 그 순간, 내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 한 조선인 청년이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 미를 저격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거사 이후 자신이 어떤 일을 당 하게 될지 알면서도 국권 회복과 동양 평화를 위해 기꺼이 총을 든 청년 은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 로부미를 저격한 의거가 일어난 날로, 올해는 그 의거가 일어난 지 110 주년이 되는 해이다. 안중근의 항일 의거 110주년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그의 의거를 상기하고 그 뜻을 기리는 각종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10월 26일,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는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 기념 식'이 거행됐고, 문화계에서는 관련 영화,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신한대학교도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기념 하고, 그를 기리기 위해 대학원생 40명과 디자인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학생들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태권무로 형상 화한 창작 뮤지컬 '안중근의 꿈'을 준비했다. 공연은 2019년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재학생과 의정부 지역 주민에 한해 무료로 선보 였으며, 총연출은 신한대 태권도교육연구원 최상진 원장이, 안무는 권경 상·이정아 교수, 한길수 코치가 맡았다.

공연은 1900년대 초 근대화와 함께 조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를 배 경으로 1905년 중국 산동 지방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며 구국 운동을 펼치는 안 의사, 1908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의병 부대 동우회를 조직해 일본군과 싸우는 안 의사, 왼손 넷째 손가락 첫 마디를 잘라 흐르는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大韓獨立)'이라고 쓰며 항일 투쟁과 독립 의지를 다 지는 안 의사의 모습을 태권도 퍼포먼스로 형상화해 진행되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1909년 10월 26일, 안 의사가 만주 시찰을 위해 중국 하얼빈 역에 도착한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세 발의 총알로 처 형하는 장면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일본의 형식적인 재판 끝에 사형언도를 받는다. 결국 안의사는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해 하나님 앞으 로 가라"는 모친의 말의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이듬해 3월 26일 고국의 땅이 아닌 중국 여순감옥에서 쓸쓸히 순국했다. 저서 '동양평화론'을 완성 하지 못하고 순국한 안 의사는 "이토의 처단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한국 국권의 회복과 동양 평화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조 치였다."는 말을 남겼다. 신한대학교 대학원생 및 태권도교육융합전공 학 생들은 공연의 마지막으로 '신한대학교 청년 선언문'을 읽은 후, 관객들과 다함께 "NO 방사능, NO 욱일기, NO 올림픽, NO 아베"를 외치며 마지막 으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여 관람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로써 신한대학교는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며 시 대정신을 바로 새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다.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은 "최근 일본과의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애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밝혔고, 신한대학교 한 관계자는 "태 권도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태권도를 예술 차원으로 끌어올려 가 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문화 관광 상품화 차원에서 이번 공연을 갖게 되었 다"며 "신한대에서 태권도융합전공을 선택하려는 중 고교생들에게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명분으로 수출규제와 백색기업 명단(화이트 리스 트) 제외 등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하자, 이에 맞서 우리나라가 내세 운 'NO JAPAN'의 문구이다. 최근 더욱 악화된 한일 갈등 관계 속에서, 신 한대학교는 항일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태 권도 뮤지컬 '안중근의 꿈'을 공연하는 등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 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의 교훈을 알리고 역사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신한대 학교의 이러한 노력으로 신한대학교 학생들과 의정부 지역 주민들이 비 극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될 시대정신과 애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래는 '신한대학교 청년 선언문' 전문이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장을 향하여 토한 사자후를 상기하여 대한민국의 청년의 신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No 방사능! No 욱일기! No 올림픽! No 아베!

우리는 전범기인 욱일기가 입장하는 도쿄 올림픽을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을 반대한다

일본 수상 아베 신조는 대동아 전쟁을 도발한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며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오시마 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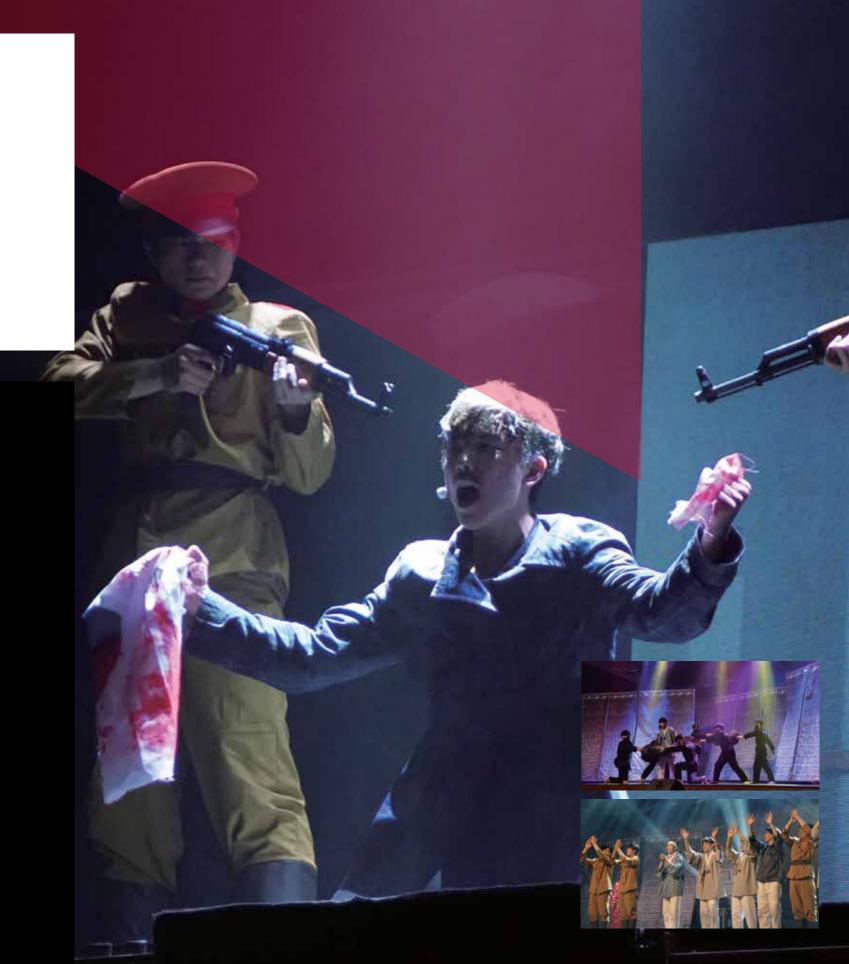
아베는 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획책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를 가장한 가면을 쓴 국가이며 일본과 아베의 일반적인 주장에는 자신들만이 '절대 선'이라는 제국주의 근성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그들은 인류의 평화 대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몽상가들이 다. 우리는 과거 수많은 아시아인들에게 고통과 치욕을 안긴 일본의 만행을 반추하며 그들의 침락주의 근성을 예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아베의 주장!

전범기인 욱일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 우리는 더이상 그들의 비윤리적인 주장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면 뒤에 숨긴 역사 왜곡과 범죄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해야 한다. 지구촌 국가들은 '평화올림픽'으로 위장한 '방사능올림픽'을 반드 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의 생명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 인륜과 도덕을 무시 한 잘못된 올림픽은 히틀러의 베를린올림픽 하나로 충분하다.



47

사과대(사회과학대학) 작가들의 제1회 백일장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높은 참여율과 훌륭한 결과 얻어 최우수상(방안) 수상자 미디어언론학과 박성진 학생 "이 상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첫 발걸음이 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누리봄' 김다현 학생회장 "앞으로도 백일장 대회를 계속해나갈 것"

백일장은 국가나 단체에서 문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글짓기 대회를 의미한다. '대낮에 마당에서 열리는 경연'이라 하여 백일장(白日場)'이라 불렸던 이 대회는,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했던 글짓기 시험이었다. 조선시대 시험으로 시작한 백일장은 현재 다양한 주체들이 주제들을 내세워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과시민들의 문예활동을 장려하고, 특정 분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신한대학교에서도 백일장이 열렸다.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제1대 단과대 학생회 '누리봄'이 '제1회 사과대(사회과학대학) 백일장'을 연 것이다. 학생회와 백일장 둘 다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다.

백일장 시상식은 11월 19일 오후 6시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지하 1층 다목적1실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비롯한 각 학과(미디어언론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공공행정학과)의 학과 장들과 학생들, 행사 관련 내·외부인들이 참석했다.

사회자의 감사 인사로 백일장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백일장 심사를 진행해주신 각 학과의 학과장님과 행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주신 사회과학대학의 안이수 학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장학금 마련과 상장 준비에도 힘써주신 교학팀 팀장님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사회 복지사협회 회장님, 지식복지대학원 총동문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가장 먼저 장려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장려상은 공공행정학과 김나연

학생 외 6명, 유아교육과 장은주 학생 외 4명, 사회복지학과 김성현 학생 외 8명, 미디어언론학과 이근영 학생 외 1명이 수상하였다. 이어 우수상은 유아교육과 강단예 학생, 최우수상은 미디어언론학과 박성진 학생, 대상은 공공행정학과 최강호 학생이 수상하였다.

우수상(탐화)을 수상한 유아교육과 강단예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회적 배경과 상황에 대해 이야 기하며 '복지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글을 썼다. 강단예 학생은 "이 글의 주인공은 저 자신입니다. "평범하게 살기 위해 늘 숨어서 지내야했고, 저 에게 자유는 사치나 다름없었죠"라며 "빛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복지'의 초점은 과연 누구를 향해 있는 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담담히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어 그녀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글을 정말 많이 쓰고 접했고 그래서 백일장 소식을 듣자마자 고민 없이 도전했던 것 같다"며 " 우수상이라는 결과는 열심히 쓴 만큼 정성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 사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글이 무엇인지 파악하 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와 독자는 대면하지 않아도 글을 통해 공감과 위안을 얻으니까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독자입니다. 누군가가 제 글을 통해 위로받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혔다.

최우수상(방안)을 수상한 미디어언론학과 박성진 학생은 '악플로 자살한 유명 연예인의 편지'를 소재로 '연예 - 웃음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박성진 학생은 "만약 웃음이 팔수록 없어지는 거라면, 웃음을 전부 팔아 고갈되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며 "웃음을 전부 소모해 우울증이 생겼을 때의 상황과 감정들을 상상하면서 자리



에 앉아 막힘없이 글을 써 내려갔던 것 같다.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창작 활동에 관심이 많다"며 "평소에 글을 많이 쓰려고 하고, 실제로도 그런 편이다. 최근 창작 활동에 대해 슬럼프를 겪고 있다. 그래 서 백일장 참여도 망설였는데, 참여하기로 선택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최우수상을 받은 것 자체로도 정말 기쁘지만, 이 상이 슬럼프에서 벗어나 는 첫 발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행복한 것 같다"라고 앞으로 도 창작 활동에 더 매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누리봄'의 김다현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잡아 백일장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김다현 학생회장은 "백일장이라는 행사를 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며 "어떤 활동이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 한참을 생각했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백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백일장이라는 대회가 정해지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장님과 학과장님 그리고 교학팀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제 선정에 힘썼다"며 "어

떤 주제가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네 개 학과 학생들의 개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선정했다"고 말하고 높은 백일장 참여율과 관심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로써 많은 이들의 기대와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던 '제1회 사과대 백일 장'이 시상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제1대 학생회가 기획한 제1회 백일장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사회과 학대학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도 이에 한몫했다. 앞으로의 다른 학생회가 꾸려갈 백일장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의 발전이 기대된다.

조희지 기자





'창공의 눈' 드론으로 내려다본 신한대학교

미디어언론학과 취업 특화 프로그램 실습 전시회 미래 성장동력이자 넓은 활용도를 지닌 드론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색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 제공 대관영(미디어언론학과/18학번) 학생 "드론에 대한 넓은 생각을 갖는 계기 돼" 백철기 겸임교수 "이번 경험은 학생들이 다방면의 미디어 분야에 적응하는 계기 될 것"





이미 세계 유수의 나라들은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국민들도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게 했고, 국내외 주요 드론 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이끌 어갈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 2020년대에는 음식배달 및 택배배송, 공 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본격화하겠다는 혁신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15년 전부터 세계 1위 업체인 DJI 본 사가 있는 선전에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생태계가 구축된 드 론 천국이 됐다.





중국 드론 업체 이항(EHang)은 지난 2016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유인비행제품이기는 하지만 택시용으로 개발한 드론인 '184' 모델을 공개했다. 차량운송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2023년부터 드론 택시 시험비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미 3,000대 가량의 농 약살포용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헬기에 비해 구입비용과 운영유 지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토목 및 건설현장으로 활 용분야를 확대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을 내놓은 데 이어 4차 산업혁 명 기술이 접목된 미래도로 계획인 '도로 기술개발 전략인'을 수립했다. 정 부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어깨를 견줄만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드론 전용 하늘길'을 구축하고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로 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한참 뒤쳐져 있는 분야인 드론과 미래도로 등에 대해 정부가 큰 그림을 잇달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의 드론 택시·택배는 겹겹이 쌓인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대 느낌을 주는 장재혁 학생의 사진까지 학생들의 사진을 통해 서울의 아름 표적인 산업이다. 전파법부터 전기인증, 항공법, 통신법, 보안법 등 각종 법의 적용을 받는 데다 안보 위협 때문에 군 당국까지 비행 가능 공역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도 지난해 평창동계올림 픽 때 초소형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수놓은 오륜기 쇼는 전 세계의 극 로운 시각에서 보여줘 새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찬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당초에는 야간비행 금지 규정 때문에 가로막 혔고 국토교통부가 국제행사에 한해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후에야 가 능했다. 이는 기술 잠재력은 충분한데 규제 때문에 날아오르기 전부터 날 개를 펴지 못하는 한국 드론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지 난 16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2019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에서 821 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하는 데 성공해 기네스북 등재가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은 장밋빛 전망과 동시에 우리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암을 지닌다. 산불 진화, 물품 배송, 범죄 프로 파일,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분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이 다른 한편에 서는 테러나 불법촬영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 실제로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지난 9월에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고'의 정유 시설 두 곳이 드론 테러 로 인해 불탔다.

그럼에도 드론은 쉬운 조작법과 뛰어난 접근성, 넓은 활용도라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드론 조종 인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며 미래 유 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화문 광장의 시위 현장 모습을 뉴스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 화 등에서 헬기 대신 드론으로 촬영해 시청자에게 아름다운 영상미와 색 다른 느낌을 선사해주는 등 방송 영화계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한대 미디어언론학과 학생들은 '드론커뮤니케이 션의 이해와 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드론을 이용해 학교의 풍경과 서울의 전경을 한 폭의 사진에 담았고, 액자에 넣어 이를 전시하는 '취업 특화 프 로그램 실습 전시회'를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신한대 의정부캠퍼스 에벤 에셀관 1층 로비에서 열었다. 전시회 첫날에는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과 수업을 지도한 백철기 겸임교수를 비롯해 미디어언론학과 이종탁 학과장 과 김대근 전임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의 고층빌딩과 아파트, 길게 뻗은 한강다리를 배경으로 한 정윤서 학생의 '미세먼지 아니고 안개'라는 작품과 김윤미 학생의 의정부 호장교 를 찍은 사진, 하늘에 드문드문 떠다니는 구름이 한강에 그대로 비쳐 맑은 다운 경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채은·김해리·문지환· 정윤지·최미연 학생이 찍은 신한대 에벤에셀관 사진을 비롯해 기도관, 기 숙사, 행함관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까지 학교의 모습을 평소 보지 못한 새

이종탁 학과장은 "드론이라는 미디어를 이용해 신한대 및 주변 경관을 찍는 우리 학과의 정체성에 맞는 훌륭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나 도 학교 다니면서 미처 보지 못한 학교의 면들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게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진리관(중앙도서관) 건물과 한강 드론공원에서 한강다리를 촬영한 대 관영 학생은 전시회 소감에 대해 "드론 조작법도 배우고 교내 캠퍼스뿐만 아니라 야외 촬영도 나가 재미있는 수업이었다"며 "드론에 대한 생각을 여 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저도 그 트렌드에 발을 내딛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나중에 사진을 고를 때 힘들었고, 날씨가 생각했 던 것만큼 좋지 않아 원하는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고 했지만 " 드론이나 촬영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꼭 수강해서 드론을 통해 기존의 시 각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후배들 에게 수업을 추천했다.

신대현 기자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의 김겨울 작가 초청 북토크

신한대 중앙도서관 주관 김겨울 작가의 '북튜버로 살아가기.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주제로 개최 1부와 2부로 나눠 참석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 김겨울 작가 "책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미"







미나실에서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주관 '김겨울 작가 초청 북토크'가 개 고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했다. 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김 작가는 '북튜버로 살아가기, 프리랜서로 살아 가기'라는 주제로 새롭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시대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 는 1인 미디어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크리에이터를 꿈 겨울 작가가 답변하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한 학생이 유튜브 〈겨울서 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북토크는 신한 점〉에서 책을 추천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묻자 김 작가는 '재미'를 꼽았 대학교 재학생들은 물론,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도 참석하는 등 사람들의 다. 김 작가는 "정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그중에 가장 재밌는 것을 추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북토크의 주인공인 김겨울 작가는 11만 구 라고 답변했다. 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며 미디어 시대의 첨단 을 달리는 명사이다. 김 작가의 저서로는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 『독서 의 기쁨』,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가 있다. 또한, 김 작가는 현재 집필활동 외에도 인디그룹 [겨울소리]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라디오 채널인 「라 며 "영상을 만들다보면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토크는 김겨울 작가가 강연하는 1부와 참여자들의 질문을 받는 2부 증을 풀어주며 참여자들과 진솔하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 김 작가는 "라디오 DJ를 하면서 방송에 재미를 느 꼈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주제로 방송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영상을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자주 접하고 영상 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유튜브를 선택했고, 생각을 마치자 곧바로 채 널 이름을 짓고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해 올렸다"라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또한, 김 작가는 "유튜브 겨울서점 채널 운영에는 그동안의 여러 경험이 제각각의 기여를 했다"며 유튜브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해볼 것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번 북토크를 통해 〈겨울서점〉의 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앞으로의 유튜브 계획을 밝히며 그동안 유튜브 채널 운영

지난 11월 5일 오후 1시,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은혜관 지하 1층 세 을 통해 쌓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유튜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하

2부는 사전에 받은 질문과 강연을 듣고 난 후 학생들의 현장 질문에 김 한다"며 "책 추천 영상들은 모두 구독자들에게 추천할만한 책인지 고민 한 뒤 책에 관해 전할 정보들을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겨울 작가는 "점점 늘어가는 구독자가 힘이 될 때도, 부담 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구독자들이 힘이 된다는 감정이 더 지배적"이라 이 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겨울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책을 좋아하 는 이유, 책을 읽기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등 쏟아지는 참여자들의 궁금

한편, 중앙도서관 한 관계자는 "대학 문화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개인의 독서 생활을 장려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개최 이유를 밝히며, 북토크에 참여한 학생들 전원에게 기념품과 간식, 장학금 마일리지 5점 을 제공하고, 선착순 40명에게 김겨울 작가의 저서를 증정하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끌어 올렸다.

정윤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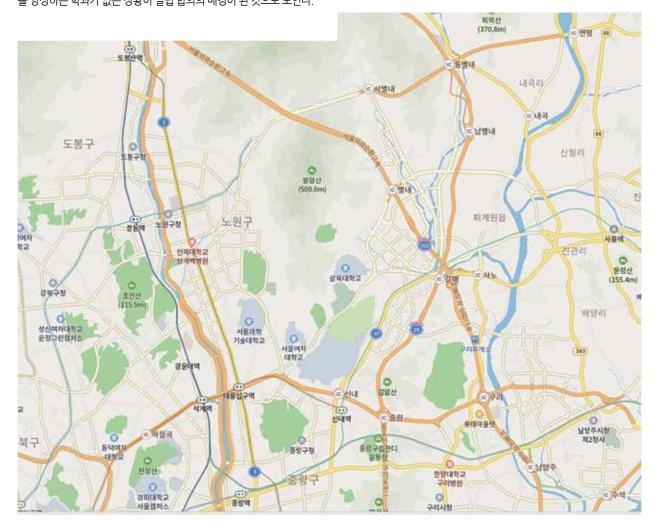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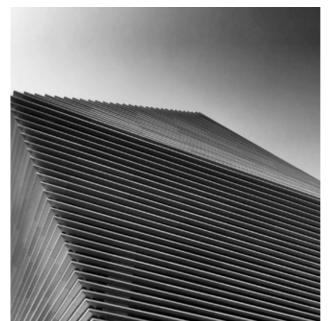
신한대, 한국미술협회와 공공미술 수장고 및 미술관 설립 합의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지난 10월 23일 한국미술협회와 함께 남양 주시 별내동 신한대학교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미술 수장고와 한국미술협회 직영 미술관을 설립할 것에 합의했다. 기존의 미술 전공 학과들이 순수미술이나 조형예술, 디자인 등에만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품을 설명하는 전문 안내인인 도슨트나 큐레이터, 세계 최대의 미술품경매회사인 소더비나 크리스티 등 세계적인 미술 산업에서 일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가 없는 상황이 설립 합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성총 총장은 "임시정부 시절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나라는 문화가 찬란하게 꽃 피는 나라'라고 말한 것에 공감한다"며 "한국미술협회의 계약 화과로 신한대에서 세계적인 미술품 거래소에서 일할 전문인력들이 양성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헌 수습기자





















[대담한 기자들] 뒤틀어 바라본 문화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발상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문화'라는 연못은 범람하기에 이르러 연극. 영화. 책. 음악, 미술 등 문화를 접하는 방법은 많아졌고.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원한다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체면과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경 쓰고 있다. 자신이 어떤 문화를 즐겼다고 당당하게 공개하는가 하면 반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타인과 외부로부터 자신의 즐거움을 숨기 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도 문화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발전되었다.

문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신한대학교 기자들은 단순히 문화가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범 람하는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째서 자랑할 수 있는 문화와 그렇지 못한 문화로 나뉘었는지 그리고 벽을 허물고 문화를 포용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문화를 뒤틀어 바라보았다.



범람하는 문화

최수민 편집장: 어떤 시인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 는 글처럼 의미 없는 글을 쓴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다"와 같은 글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책을 구매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들에게 있어 책은 이 윤창출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성 기자: 요즘 SNS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점점 영양 가 없는 것들을 현대인들이 갈수록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노래 가사에 의미가 담겨있는 발라드곡이 유행했잖아요? 하지 만 요즘 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같은 가사 처럼 의미는 없고 신나는 리듬감과 재미만 추구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단 순화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수민 편갑장: 우리가 80~90년대 노래를 가끔 유튜브 등에서 듣는데. 오래된 노래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찾아보고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이

유가 노래의 멜로디 때문도 있지만 노래 속 가사 하나하나를 그리워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민성 기자의 말처럼 현재 유행하는 노래의 대부 분이 재미와 중독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이니까요. 이 사이에서 예전의 문 화를 다시 추억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민성 기자: 『아날로그 반격』이라는 책에서 나타내길 요즘 인기 있는 여 행지인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 추억여행 하기 좋은 곳을 찾는 이유는 사람 들이 예전 감성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이 책을 바탕으로 쓴 『열두 발자국』 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기술과 데이터들이 하루 만 지나도 수백 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기술혁신의 중심에서 현대인이 문명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박현규 기자: 사람들은 요즘 쉬고 싶어 해요.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어디 로 이동하거나 머리 쓰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가사의 노 래를 들으면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머리를 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뮤지컬이나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을 즐기려 면 밖에 나가야 하고, 밥도 먹고, 차비도 들고, 제일 큰 것은 몸이 피곤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월정액만 내면 언제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생각을 하거나 몸을 피곤 하게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괜찮은 콘텐츠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 신의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문화생활 하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문화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생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죠

화생활이 한정적이었지만, 현재 미디어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장르와 선 택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현규 기자 말처럼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 는 게 힘들다 보니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더 선호 하게 된 것 같아요

김민성 기자: 형모 기자 말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예 전에는 할 게 없었으니 책을 읽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나 때 마르크스는 기본으로 알고 있었다"는 교수님의 농담이 이해가 가요. 하지 만 요즘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문화에 대한 깊이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수민 편집장: 저도 부정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너무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더 선호함에 따라 무언가 모여서 활동하는 공동체적 생활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는 문화

최하민 기자: 전시회에 다녀온 것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데, 그 전 시회를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하 기 위한 느낌이 더 강해서 이것도 요즘의 문화생활의 문제점이라고 생 각해요

조유빈 기자: 덧붙여 말하자면, 올해 초에 에릭 요한슨 사진작가 전시회 에 갔는데 그 작가는 자신의 방식으로 편집해서 사진을 만들어요. 전시회 에서 본 사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책상에 앉아있는 자신과 서로 다 른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을 바라보게 편집했고, 그 사진의 의미는 ' 내가 바라본 나의 자아'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작품을 다 시 보려고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있었어요. 작가가 어떠 한 방식으로 편집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진부터 찍고 SNS에 올리자'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단지 문 화생활이 단순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

회가 아니라, 한순간의 쾌락과 같은 그냥 단순한 기분전환을 위한 문화생 활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최수민 편집장: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시회 를 보러 갔는데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진을 찍어서 혼나는 사람 최형모 기자 : 저는 문화생활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문 들이 있었어요. 저도 유빈 기자 말처럼 '작품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작품을 즐기는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생활의 기 회는 많아졌지만 작품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SNS를 위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요

> 신대현 기자: 정리하자면, 자신에게 있어 본래의 문화생활의 의미는 중 요하지 않게 되고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문화생활로 변모 했다는 거네요.

> 김민성 기자: 유빈 기자 말처럼 기껏 전시회에 갔는데 무의미하게 사진 만 찍으면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게 강의실에서도 적용되 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먼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 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받아 적어보자'라는 마인드가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PPT 하나 띄우시면 사진부터 찍지 않나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 고 '그냥 노트나 공책에 적어두고 통째로 외우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화생활에도 묻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 최수민 편집장: 민성 기자 이야기를 듣고 생각났는데, 무언가를 비판 없 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권력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전시 회를 연 작가나 교수님들은 이미 성공했고, 나를 가르치는 존재이니까 무 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유명 작가니까 좋은 내용이겠지, 교수님 이 틀린 걸 가르치실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현규 기자: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상이 그 속도에 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문화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즐기니까 문 화가 되는 게 아닐까요?



포용하는 문화

최수민 편집장: 문화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상생 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만 문화생활이라고 칭하는 것도 문제 가 있어요. 나아가 자신이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만 문화생활을 즐기다보 니 다른 사람의 문화생활은 편견의 눈으로 보고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것 같아요.

박현규 기자: 인터넷에서 글을 조금만 길게 써도 진지충이라는 둥 꼰대라 는 둥 폄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꺼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 요. 평소에 아는 사람들끼리는 상관없지만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저 오늘 연극 봤어요' 하면 바로 '경제적 여유가 있나보다', '오케스트라 공 연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닌가요'라는 말을 해요. 초·중학생들 사 이에서 책 많이 읽는 학생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수준이죠. 그냥 문화생활 즐기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감상보다 '이런 거 했어, 봤어, 갔어, 먹었어' 등을 사진으로 설명을 끝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 을 적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 않나 생각해요.

신대현 기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드러내 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현규 기자: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건 사실 힘들죠. 전통적인 문화는 가 격이 상승하고 있고, 대현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나 이거 좋아해' 라고 말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요.

최수민 편집장: 문화와 본인의 취향이 연결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즐기 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와 취향이 패션처럼 남들에게 보 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주저하죠.

신대현 기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뿐 사실 사람들은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영화, 오페라, 전시회 같은 고급스러운 것만 문화생활로 단정하 고, 게임이나 소설, 애니 등은 문화생활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죠.

박현규 기자: 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혼자서 즐길 수 있고,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 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변화되어가고 있어

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는 것과 여유를 즐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전통적인 문화 즉 연극, 전시회, 뮤지컬 등을 즐기기보단 웹툰, 넷플릭스를 보는 것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상되 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문화를 즐기고 있지만 문화를 즐기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 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고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문화생활이 변 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성 기자: 그 말에 동의해요. 문화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것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회의 흐름에 맞게 가는 것 은 옳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하위문화 즉,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의 경계 를 나누어 문화의 구분을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양한 문화들이 어울려 있는데 서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태도는 고쳐야 하겠고, 고정적인 인식 틀에서 벗어나 문화의 경계의 벽을 없애야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형모 기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문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인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발 전시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계승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하민 기자: 저도 지금의 틀에 박힌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수민 편집장: 우리가 이렇게 주류문화와 하위문화를 구분 짓는 것도 학 교에서 교육받으며 학습한 결과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이 없 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민성 기자: 하위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 죠. 예를 들면, 오타쿠, 씹덕, 빠순이 등…. 이러한 표현들도 잘못되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표현들도 고쳐나가며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면 모두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최수민 편집장: 이상 [대담한 기자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문화를 즐기며 살아야 할까? 17세기 스페인에서 활동한 신부이자 작가인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사람은 야만인으로 태어 났다. 그러나 문화를 받음으로써 짐승으로부터 구제되었다"라고 말했다. 한 개인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도덕성, 이성, 합리성 같 은 인간과 짐승을 구분 짓는 여러 가지 잣대들을 '문화'를 통해 접함으로써 체득하고 배운다는 뜻일 것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권선징악 등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클리셰로 이루 어진 문화적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 가 살면서 마땅히 갖춰야할 보편적인 인간 정서에 관한 것들을 문화적 창 작물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 아닐까. 영화 〈어벤져스〉를 보고 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는 꿈을, 〈타이타닉〉 을 보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지 않은 청춘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관을 나온 뒤 다시 삶이라는정글로 되돌아오면 우리는 너 무나 쉽게 돈과 명예, 권력을 쫓는 짐승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정글에서 사회로, 짐승에서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문화를 꾸준히 채워주지 않 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부러 없는 시간을 쪼개고, 안 그래 도 부족한 돈을 아껴서 문화를 접하는 이유이며, 문화의 힘을 알기 때문

에 2016년 문화생활비를 연 15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발의하고, 문화기본법을 제정해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는 이 유일 것이다.

문화를 접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여가생활이 아닌 자신을 구성하는 생활방식과 삶의 태도를 만드는 일이다. 때문에 주 류문화이든, 하위문화이든 '문화'라는 그 자체만으로 문화는 존중받아야 하며 비로소 문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더욱 풍성한 사회가 될 것이다.

조유빈 수습기자





O

내가 만든 거짓말이 나를 만든다

연극 〈라이어〉

무언가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연극 〈라이어〉가 <mark>그렇다. "지금도 대학로 어디</mark>에선가는 '라이어' 공연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라이어〉는 1998년 국내 초연 이래 꾸준히 사랑받아온 연극 중 하나이다.

〈라이어〉는 그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중생활을 하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의도치 않게 자신의 거젓말을 들킬 위기에 처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다른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숨 가쁜 블랙코미디 속에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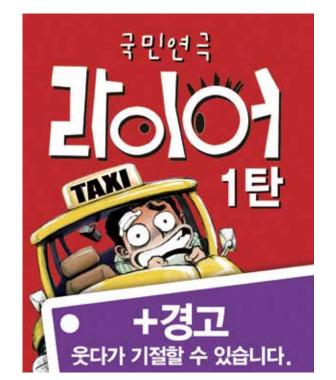
대학로에서 〈라이어〉 공연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라이어〉가 거창한 소품이나 무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 극장과 그 배우들 입장에서 이러한 요소는 정말 매혹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라이어〉는 배우들의 연기력을 요구한다.

《라이어》는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군상극이다. 두 개의 공간 배경을 한 무대에 압축하고, 배우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연기한다. 고양이가 가지고 놀다가 버린 실타래마냥 엉켜있는 동선은 관객들을 혼란시키고, 밀도 높은 대사들은 매순간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벅차 그것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는 전적으로 배우의 연기에 달려있었다. 하지만 〈라이어〉 공연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라이어〉가 낡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전 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처음 창작된 시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이어〉의 원작인 'Run for your Wife'는 1989년에 창작된 희곡으로, 30여년에 달하는 시간동안 사회 분위기는많이 바뀌었다. 예컨대, 〈라이어〉에는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 혐오)' 정서를 유머 코드로 활용하는 장면이나온다. 비록 원작 'Run for Your Wife'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처음 창작된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호모포비아라는 개념 자체가 터부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라이어〉의 웃음 포인트는 다소 불편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수한다면 〈라이어〉는 당신에게 특별한 그리고 밀도 높은 웃음의 순간이 될 것이다. 장담한다.

박현규 기자



어머니와 아들의 마음이 만나다

영화 〈크게 될 놈〉

영화 〈크게 될 놈〉은 범죄자가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어머니의 뜨거운 모정(母情)을 담은 감동적인 영화이다. 순옥의 사고뭉치 아들 기강은 고향인 작은 섬을 떠나 무모한 성공을 꿈꾸지만 결국 범죄자로 전락해 사형을 선고 받는다. 언제 죽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로 자포자기 상태의 기강에게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한다. 이 편지는 기강이 집을 나간 이후 수년간 떨어져 지내며 서서히 멀어졌던 두 모자를 다시금 이어지게 만든다.

영화 〈크게 될 놈〉이 잔잔하고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유는 특출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영화들이 빠르고 자극적이고 규모가 크게 앞다투어 제작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영화들과 비교하면 〈크게 될 놈〉은 내세울 것이 그다지 없는 영화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매일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인공인 기강이라는 인물에게 '크게 될 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하며 영화를 보면 영화의 제목이 더 의미 있게 여겨진다. "기강은 크게 될 놈이야"라는 묵직한 한마디가 기강의 마음에서 점점 커져 기강은 다른 의미에서 스스로를 '크게 될 놈'으로 여기며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 인생의 한방을 꿈꾸며 점점 더 대담해지고 여러 곳에 손을 대던 그들은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른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올라온 기강과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략해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기강이는 크게 될 놈"이라는 그한 마디가 무서운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이 영화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기강을 이끌던 단 한가지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담아내어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여운은 아주 길게 남는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다. 진정한 변화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그리고 기강과 그의 어머니가 한마음이 된 것처럼 상대방과 마음이 합쳐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조유빈 기지

C U L T U R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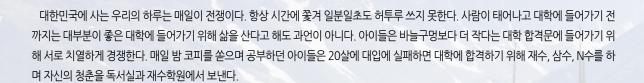




한국과 부탄, 두 나라의 행복

책: 『97퍼센트가 행복하다고 느끼다 행복의 나라 부탄의 지혜』

- 사이토 도시아, 오하라 미치요 저



이 시기에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은 오직 명문대만을 바라보며 말 그대로 공부에 '찌든' 하루를 또 보낸다. 이렇게 공부해서 대입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 뒤로 행복할까? 아니다.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은 이제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빛나는 청춘을 보낸다. 인생의 목표가 좋은 대학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대부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틀에 박힌 인생을 산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우리는 흔히 '삶은 경쟁'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건네는 인사말 중 하나는 "행복하세요"이다. 매일 경쟁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책에서 나타나는 부탄왕국(인도와 중국 사이의 히말라야산맥 지대에 위치한 공화제를 채택한 왕국)의 행복의 척도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큰 차이 중 하나로, 앞서 언급했던 교육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치열한 대입 경쟁 속 상위권에 들기 위해 많은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부탄에는 사교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부탄은 모든 공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도 큰 차이가 없다. 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부탄 사람들은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뛰어놀길 바라다.

근대화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바로 '빈곤 완화'이다. 사람들은 근대화로 인해 더욱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근대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지역공동체는 희미해진다. 현대식 건물과 도로의 건설로 산은 깎여나가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편리함만을 추구해 환경문제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난다.

반면에, 부탄 사람들은 욕심이 없고 검소하다. 부탄 사람들은 부자를 꿈꾸지 않으며, 자연을 사랑한다. 그리고 느리고 천천히 행복해지는 법을 안다. 부탄은 근대화를 서두르지도 않는다. 환경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는 부탄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깨트리기 싫어해 모든 나라가 추진하는 근대화 정책을 서두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행복의 기준을 부탄의 기준과 똑같이 맞춰야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부탄의 국민 90%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우리나라의 행복의 척도를 부탄에 맞춰야 한다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책은 부탄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부탄의 이면도 함께 보여준다.

"부탄의 젊은이들은 힘을 들이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기 위해 취직을 미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탄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실업난에 허덕이던 젊은이들은 마약에 빠져 산다. 우리나라 돈으로 단돈 5,000원이면 마약 한 알을 구매할 수 있고, 새벽이면 마약에 빠진 젊은이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부탄은 자살률 또한 높다."

- 부탄의 행복의 비밀 본문 요약 -

모든 것에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 범죄와 높은 실업률, 자살률로 부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부탄은 부탄이라는 나라만의 '행복지향성'이 있다. 개개인의 행복과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행복지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만의 사회가 있다. 우리나라 문화와 사회가 아예 다른 부탄의 행복의 척도를 우리나라에 대입하고, 불행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친구들과 함께 종일 학교에 있으며 추억을 쌓고, 직장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 사회 생활을 배우고, 사랑스러운 연인과 한 가정을 꾸리며 오손도손 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아닐까.

정윤지 기자





64

5 ShinHan 톡톡_1! ShinHan Universit

금융 비리와 당신의 관계

영화〈블랙머니〉

"너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지?" _ 영화〈블랙머니〉대사

C U L T U R

영화 〈블랙머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비리를 일삼는 부조리한 사회를 그려냈다. 그것도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건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덮어버리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작중에서 다루는 대규모 금융비리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고 방송 상영 준비까지 마쳤음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도중에 모든 자료를 압수해버리는 장면 역시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영화는 거대한 부패에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저항해야 할 것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요즘의 우리는 뉴스에서 아무리 터무니없는 사건이 보도되더라도,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다른 연예인 이슈 등에 의해 금방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짧은 관심으로 끝나고, 민중의 대규모 분노까지 야기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만약, 대규모 금융 비리에 의해 우리나라가 5조 원 규모의 국제 소송에 회부되고, 거기서 패소한다면 어떨까? 여기서의 '패소'는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5조 원을 변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국민이 1인당 10만원씩 타국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시로 제시한 5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은 영화가 다루는 사건의 연장선에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실화이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된 실화를 소개하고, 이 일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실제로 2012년 금융위원회는 한 금융기업의 매각을 승인하고, 매수 당사자인 외국 투자 기업은 그 해에 금융기업을 매각하기 위해 시도한다. 이후, 매각은 성공하였으나 외국 투자 기업은 우리나라가 매각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에 제소하게 된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한화로 약 5.5조 원 규모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사건에서 대두된 금액 5.5조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다면서, 관객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형사소송법 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작중 주인공의 이러한 대사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정직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와 공정으로 번영한 사회일까?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한강의 기적' 신화에서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과연 그 안까지 번영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 기업에게 기꺼이 10만원을 내어줄 것인가? 〈블랙머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고위 권력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조작되는 세상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마무리된다.

김민성 기자, 한승헌 수습기자









경기북부 대학 연합 융합기술 창업 프로그램 '2019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

지난 11월 21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차의과학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렸다. 참여 결 과, 신한대학교 'YES MEISTER'팀이 제안한 '자석착탈식 조각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는 1부 융합기술 창업특강, 2부 네트워킹데이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취창업지원처 김정훈 처장은 "대상수상을 계기로 창업문화가 확산되어 대학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대, 미국 가지 않고 해외인턴십 경험 쌓다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2020학년도 상반기 영어기반 해외인턴십 프로 그램 7기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 테이블을 11월 20일 의정부 캠퍼스에서, 21 일 동두천 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영어기반 해외인턴십은 신한대학교와 미 육군 시설사령부의 협력합의서 (MOC)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본교 재학생(4학기 이상 수료생) 을 대상으로 용산, 동두천, 성남 지역의 미군부대 내의 행정부서에서 6개월 간 근무하며 영어와 직무능력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도권 유일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 시설사령부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한 학생은 "이 프로그램은 미국 문화 를 배우며 영어 능력 향상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학점 인정 및 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2017년 상반기 1기를 시작으로 현재 6기를 운영, 46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1기 2명, 4기 1명, 5기 1명의 학생이 미2사단에 취 업하는 좋은 결실을 얻었다.





최하민 수습기자

신한대, '제67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총 1,148명 응시 수도권 3위에 빛나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19년 제 67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11월 17일 실시하였다. 신한대는 2014년 TOPIK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총 5회 시행, 약 5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 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는 국가시험 이다. 현재 신한대의 외국인 학생은 20여 개국 약 850명으로, 어학연수생, 학 부생, 교환학생, 대학원생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경기북부지역 외국인 유학생 선호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한대, 인도네시아 정부 및 대학에 국제교류 시대를 열다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와 인도네시아 국제여자대학교(총장 유미 나리마와티)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신한대 강성종 총장을 비롯하여 이성렬·이인규 이사, 이대홍 국제교류처장, 인도네시아 유미 나리마와티(Umi Narimawati) 총장, 아탈리아 프 라라타야(Atalia Praratya) 의장을 비롯한 9명의 공무원 일행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학교법인을 소개하고 학생 교류를 위한 학과 및 공동 관심사인 관광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며, 유미 나리마와티 총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신한대와 인도네시아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원한다"고 말했다.











가호대학 제23회 나이팅게일선서식 개최

신한대(총장 강성종)는 지난 11월 1일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제2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대 학생들이 임 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치르는 행사로, 선서를 마친 학생들은 학업과 병원 및 지역 사회에서 임상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간호학과 김혜령 교수의 개회사, 김용섭 목사의 성경 봉독 및 기 도, 양승희 간호대학장의 환영사에 이어 132명의 선서생들의 촛불의식과 선서, 강성종 총장의 격려사와 중앙대학교 적십자대학 조갑출 간호부총장의 축사 순 으로 진행됐다.

양승희 학장은 "촛불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인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는 뜻깊은 의식이라는 점에서 일생 동안 그 의의를 소중히 간직해 야 한다"며 "오늘의 엄숙한 약속을 마음 깊이 간직해 보다 넓은 세계로 나가 적극 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한대,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전통문화체험 실시

신한대(총장 강성종)는 2019학년도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대학 교환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10월 30일 오전,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전통 한지공예 인형 만들기 체험과 전통 공연, 전통 가옥 관람 등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멕시코,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17개국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어 과정의 강사 담당 팀원 등 220여명이 참석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국제교류처 이대홍 처장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며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유학 생활 중 즐거운 추억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지난 20일 사회적 가치 구현과 건강증진사업 분야의 협력을 위해 보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동 사업 및 연구,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부분 협업, 산·학 융합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인적자원 공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정책, 사 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신한대학교는 대학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USR)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전담조직 인 사회적가치추진단을 국내대학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단징 이현)은 전략체계와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운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 발,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가치 연구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 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강성종 신한대 총 장,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이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향과 가치를 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적 으로 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국민이 바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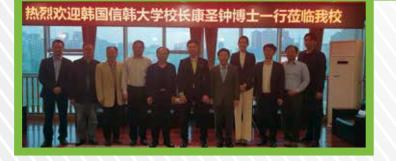




신한대 강성종 총장, 중국 사천사범대학 방문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이 10월 14일, 중국 사천사범대학교(총장 왕밍이)를 방문하여 양교의 교류 및 발전에 관하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양교 총장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학생교류를 넘어 교수와 교직원 또한 교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 다. 왕밍 사천사범대학총장은 "두 학교를 넘어 한국과 중국이 함께 손을 잡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양 교의 협력을 적극 추 진할 것을 약속했다.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은 "두 학교 교수들의 공동논문 편찬 및 각 학교 연구소 간의 학술교류, 국제대회-국제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지리적·국제적 장벽을 뛰어넘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승헌 수습기자









신한대 권영길 교수, '학술상 우수상' 수상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 권영길 교수가 2019년 12월 3일 한국행정사학회에서 학술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권영길 교수는 한국행정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행정사학지」에 논문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를 게재하여 학술활동의 수준을 제고하고 행정사 연구를 통한 행정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민주 기지

신한대, 개교 47주년 기념식 거행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개교 제47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8일 의정부 캠퍼스 벧엘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교직원, 유관기관 및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재단법인 신흥학원 안현수 이사장(수지광성교회 목사)의 설교, 강성종 총장의 기념사, 명예박사학위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종 총장은 기념사에서 "2014년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이후처음으로 맞는 교육부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오는 23일부터 진행된다"며 "이번 평가가 우리 대학이 수도권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아지즈 압두카카로비치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신한대학교 이석재 총동문회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각 각 받았다.

김민주 기자













100년 역사 오트람 중학교, 신한대 캠퍼스 투어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싱가포르 오트람 중학교 재학생들이 신한대학교를 방문하여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신한대학교 홍보대사 '신한 슈퍼스타'의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뷰티헬스학과, 치위생학과, 글로벌관 광경영학과 등 3개 학과의 실습실 견학을 비롯한 학교 건물 투어로 이어졌다.

성가포르 오트람(outram)에 위치한 오트람 중학교는 1906년에 설립된 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이다. 신한대에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한이유에 대해 오트람 중학교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대학교를 구경하고자 하였으며, 신한대학교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권에 올라있기에 캠퍼스 투어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취형모 수승기자

대학발전기금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 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박강이 이 최 서 주 홍김김송한이 김민정강박이 박김강최 김정강이 김이 김정권이 이 형신수 광영화종영이 명현민희연혼표 실을 균우 기근옥국 기교종 태성 훈진도 영상 헌우	도시기반부동산학과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교육총괄팀 컴퓨터공학전공 기획팀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공연예술전공 바이오생태보건대학 교학팀 식품영양학전공 교양교육대학 예술심리치과 지역사회서비스센터 교양교육대학 외상병리학과 지역사회서비스센터 교양교육대학 시표육대학 지역사회사비스센터 모양교육대학 시표 사회사 이번론학과 지역사회서 이번론학과 지역사회서 미디어언론학과 시설팀 교직팀 비서팀 총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바이오생태보건대학 교양교육대학 기계자동차비스센터 미디어언론학과 시설팀 교직팀 비서팀 총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바이오생대학 교양교육대학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지역사회서 교양교육대학 기계자팀 교양교육대학 기계자팀 교양교육대학 기계자팀 비서팀 총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바이오생대학 교양교육대학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무기행정학과 보이오생태보건 임상병리학과 무기행정학과 바이오식품산업건공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홍이 김김김 권김 최김김이 이오 김김김장이 권배김이류 전이 홍최 진홍 임정김조김이 중에 김김한영봉승동남금대이기 남정인상영시인승재현찬승창선수승세순숙미정규의배희섭우길건구섭중숙성균순용 호봉록일애숙영경주주희영뱀희희훈옥희숙규봉	방사선학과 부티헬스전공 학생상담센터 교양교육대학 입학교육대학 입학교육대학 입학과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의학교	강조 변강최 김황윤김박김박이신황전이박김김이송정난당유광윤랜신 양군 한당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기획처 시설팀 산업디자인전공 치위생학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총무처 디자인예술대학 교양교육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공연예술전공 에너지환경공학과 치기공학과 홍보팀	위숙현 송재필 신상철 유 석 김문성 이승주 어응수 송운흥 조우택 이광수 윤효숙 주식회사 임포유 (주)비전엔지니어링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EDUCATION LOAN (재)롯데장학재단 (주)스타비젼 주식회사 엔케이소방산업 (주)스타비젼 주식회사 엔케이소방산업 (주)세원전력 연세휴치과 종암점 임상병리학과교수실 치기공과교수실 (사)한국설비기술협회 아이들과미래 송내교회
--	--	---	--	---	--	--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 적 사 항	필수	ㅁ동문	□재학생	□학부모	□법인(기업)	□일반인(비동문)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 명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필수항목은 법인 개인정보의 수집	세법 제24조 / 및 이용이 기	/• 소득세법 자 	제160조 / • 소득세 병수증 미 발급 기탁	법 시행령 제208조에 [·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라 정보주체의 동의해 주셔야	기 동의 없이도 : 합니다.(후면 참조)		
	선택	연 락 처								
		학적사항 ※ 동문 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 장 명				부 서 명				
		100				직 위				
		E-mail								
		우 편 물 수 령 지		가택	ㅁ 직장	기 부 추 천 인	*여러명일 경우	학과명 또는 부서명 기재요망		
		총 액	금()원	(₩)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약 정	기 부 금 용 도	□ 대학발전	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며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	던기금	(* 학과, 연구소 등 시 경우 학생 장학금 5	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S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있으며, 학과 장학금 실 수 있습니다.	지정) 으로 지정하신		
		□ 무통장 입 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	0183 예금주 : 신	한대학교			
7			입금자명	ㅁ 기부자명	l과 동일 $_{\Box}$ 동	일하지 않은 경우(입금	자명 :)		
Ė	쿠 방 범	□ 자동이체 (CMS) / 휴대폰결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hinhan.ac.kr/) 하단 '발전기금' 메뉴 클릭							
, t	4	□ 교직원 급여이체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2~5 (Fax 3169)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20.04/199호

편집후기

김민성 기자

매일매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과거의 나를 원망하지 않은 적이 없던 2학기였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미명하에, 다소 무모한 길을 택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다. 그러 나 이를 후회하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원망은 감정의 영역이고 후회는 이성의 영역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상병리학과에서 '신문사' 까지, 그리고 '임상병리학과'에서 '미디어언론학과' 복수 건공까지 모두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도전이었으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길이 걱정되기도 한다. 구조상 대거 인원이 빠질 신문사, 어렵게 배워놓은 전공지식이 내년에 쓸 일이 없다는 것,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일어 지게 되는 것. 현대인에게 '근심'은 늘 뒤따라오는 문제였지만, 유독 그 강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시기이다. 어쩌면 이 199호 신한톡톡 편집후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나답지 않게 말이 길어진다.

미래는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삶에 대한 자세가 가장 미래지항적인 것 같다. 이 편집후기를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비관보다는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눈앞의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모두들 '잘'하기보다, '열정적으로' 여러 고민과 비관들을 헤쳐나가 김 바라다

김민주 수습기자

벌써 12월이다. 저번 198호 편집후기에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고 적어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눈 깜빡할 사이에 한 학기가 지나갔다. 편집후기를 쓰다보면 그 학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다. 다음 학기 편집후기에는 반성이 아닌 나에 대한 칭찬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번 199호도, 이번 학기도, 이번 년도도 이렇게 마무리한다.

조희지 기자

벌써 올 해의 마지막 편집후기를 작성하게 되어 아쉬우면서도 기쁘다. 신문사에서 1년이라는 시 간 동안 기자 활동을 했다. 많은 기사를 접하고 썼던 것 같다. 앞으로 쓰게 될 더 많은 기사가 기 대되고 걱정된다. 내년에도 좋은 기자가 되기 위 해 노력해야겠다.

신대현 기자

16번의 계절이 바뀌고 시간의 화살은 앞을 향해 쏜살같이 스쳐지나가 어느덧 철없던 스무 살 청년은 스물여섯이되었다. 그러나 나이만 먹었을 뿐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 없었다. 여전히 철없는 행동을 반복하며, 생각의 깊이는 얕고, 아직 펜 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통하기엔 날카롭고 예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러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도 잔인하게 나를 학교 안이 아 난 사회 밖으로 내물고 있다. 그 옛날 로마 콜로세움의 검 투사처럼 끝나지 않을 싸움의 연속을 가만히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떨리진 않았다. 오히려 두 눈 은 빛나고 있었고, 온 몸은 열기로 가득 찼으며, 비록 손 에 들린 것이 예리한 칼이나 창은 아니었지만 뭉툭하고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막대기를 보니 절대로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막대기에는 지금껏 나의 모든 점수가. 그중에는 신무사에서의 경현도 포함돼 있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신한대학교 신문사는 오래 계속될 것이다. 눈이 녹아 그 위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꽃을 피워냈다 다시 지는 것처럼. 나와 우리의 흔적이, 발자취가 거름이 되어 새로운 꽃을 활짝 피워내길. 그리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영원히 빛나기를….

조유빈 수습기자

사실 이번 호는 준비하는 동안 버거운 순간들이 많았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였고 글이 써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선배기자들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완벽하게 마칠수 있었다. 내가 신한대 기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윤지 기자

한 권의 신한톡톡을 만들기 위해 매주 새롭게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취재를 진행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을 반복한 지 어느새 1년 하고도 6 개월이 지났다.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신문사를 포함한 내 주변의 많은 것이 변화했다. 이제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고, 신한톡톡도 200호를 바로 앞두고 있다. 올해의 끝을 이번 199호와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현규 기자

마지막 편집후기.

나는 이제 간다. 대학교 4학년에서 사회 초년 생으로, 신문사의 선배에서 직장의 이동병으로, 200호를 끝내 보지 못하고 간다는 것 말고 미련 은 없다. 미련이 없기에 길게 쓰지도 않겠다. 신문 사에서 20대의 절반을 보냈다. 그 기간은, 남은 자 들이 평가해 줄 것이다.

최형모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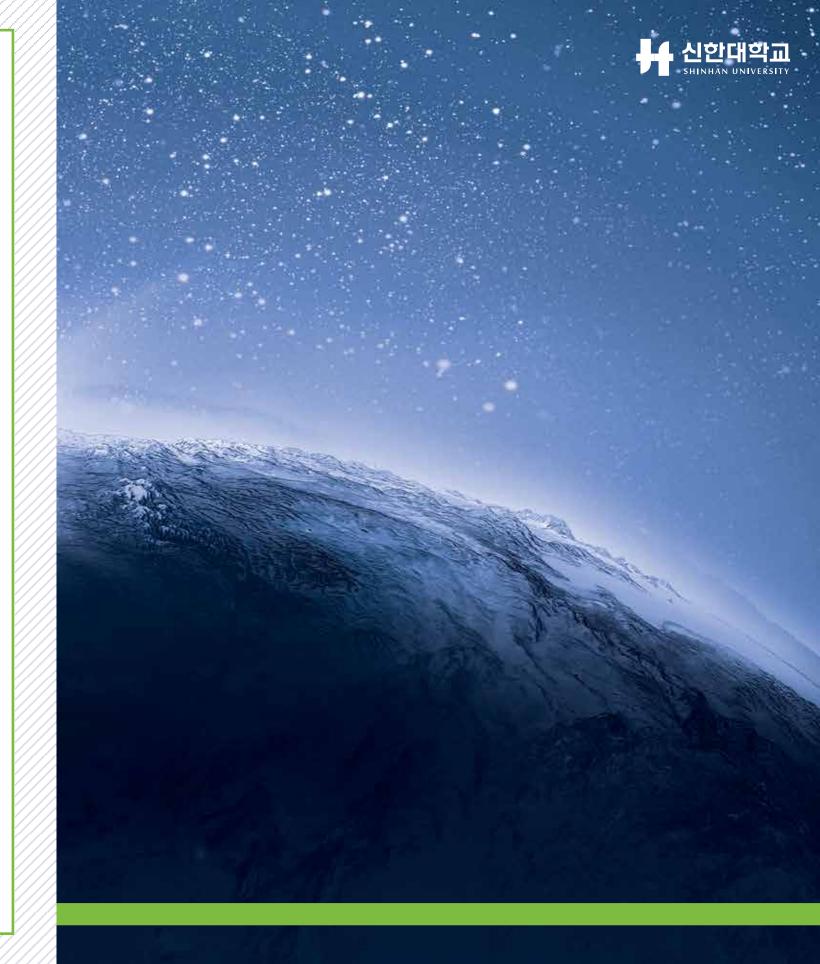
처음에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멋지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직접 취재도 하고 자료도 보며 이게 쉽지 만은 않구나 싶었고, 이제 적응은 다 했으니 책임 감 있고 성실하게 질 좋은 기사를 써나가야겠다 는 생각을 했다.

최하민 수습기자

수습기자로서 첫 기사를 작성해보았다. 정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함이 있었으나다른 기자분들이 도와주셔서 부담이 덜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지만 내가 쓴 기사에 만족한다. 다음 기사를 작성할 땐 좀 더 능숙하게 작성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수민 편집장

멋모르던 1학년 수습기자에서 편집장이 되기까지 짧지만 긴 3년이 지나고, 신문사에서의 마지막학기가 끝나간다. 그동안 나를 이끌며, 따라와 주었던 기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들이 있었기에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신문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덧붙여 말하자면 믿음직스러운 기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인복인 것 같다.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해가 찾아와도, 항상 변함없이 학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을 응원한다.



미 래 를 위 한

신의한수

4년의 투자 40년의 가치 신한대학교

- 역세권 지하
- 지하철 도봉산역 3분, 망월사역 1분
- ☑ 숲세권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그린캠퍼스
- ♥ 英세권
- 미군 2사단 캠프 영어 인턴십 운영

